

메주고리예

Medjugorje

AUGUST, 2004 제22호



평화의 모후 선교회



성모님의 메시지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는 너희를 다시금 새롭게 부른다.
내 메시지들에 대해 마음을 열어라. 어린 자녀들아, 나는 너희 모두
를 내 아들 예수님께로 더욱 가까이 이끌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기도하고 단식하여라. 특별히 나는 너희가 나의 지
향들을 위해 기도하도록 너희들을 부른다. 그래야 내가 너희들을 내
아들 예수님께 봉헌할 수 있단다; 그분께서 너희들을 완전히 변화
시키시도록 너희의 마음을 사랑으로 개방하여라. 너희가 마음 안에
사랑을 간직하고 있을 때 평화가 너희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나의 부름에 응답해주어 고맙구나.

2004년 7월 25일

돈보스코 성인의 환시

1862년 돈 보스코 성인은 교회가 성체와 성모 신심으로 무장해야 함을 환시로 보았다.

"바다에는 수많은 전함들이 떠있었고 뱃머리는 대포와 총들 그리고 여러가지 폭약들과 날카로운 창 끝들로 무장하여 자신들의 배보다 더 높은 배를 향해 돌진하며 갖은 방법으로 그 배를 부수려고 하였다. 큰 배의 지휘를 맡은 사령관은 교황이었다. 그때 넓은 바다 한가운데에서 두 개의 커다란 기둥이 솟아났는데 한 기둥은 다른 기둥보다 조금 떨어진 곳에 있었다. 한 기둥 위에는 티없으신 성모님의 상이 서 있었고 그 발 밑에는 '그리스도 신자들의 도움'이라는 내용의 이름표가 있었다. 그 보다 더 높은 다른 기둥에는 커다란 성체가 있었고 그 밑에는 '신자들의 구원'이라는 이름표가 있었다. 신자들이 거센 풍랑과 적들에게 포위된 것을 본 교황은 신자들을 구하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해 키를 조정하며 여러 개의 닻과 고리와 쇠사슬에 연결하여 두 기둥으로 향하게 하였다. 모든 적함들은 이를 막으려고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저지하면서 공격하며 배들을 침몰시키려고 하였다. 전투는 갈수록 격렬해져 적함들은 뱃머리를 밀어부쳤지만 교황이 탄 큰 배는 두 기둥이 있는 곳을 향해서 항해를 계속하였다. 때때로 적들로부터 격렬한 공격을 받아 배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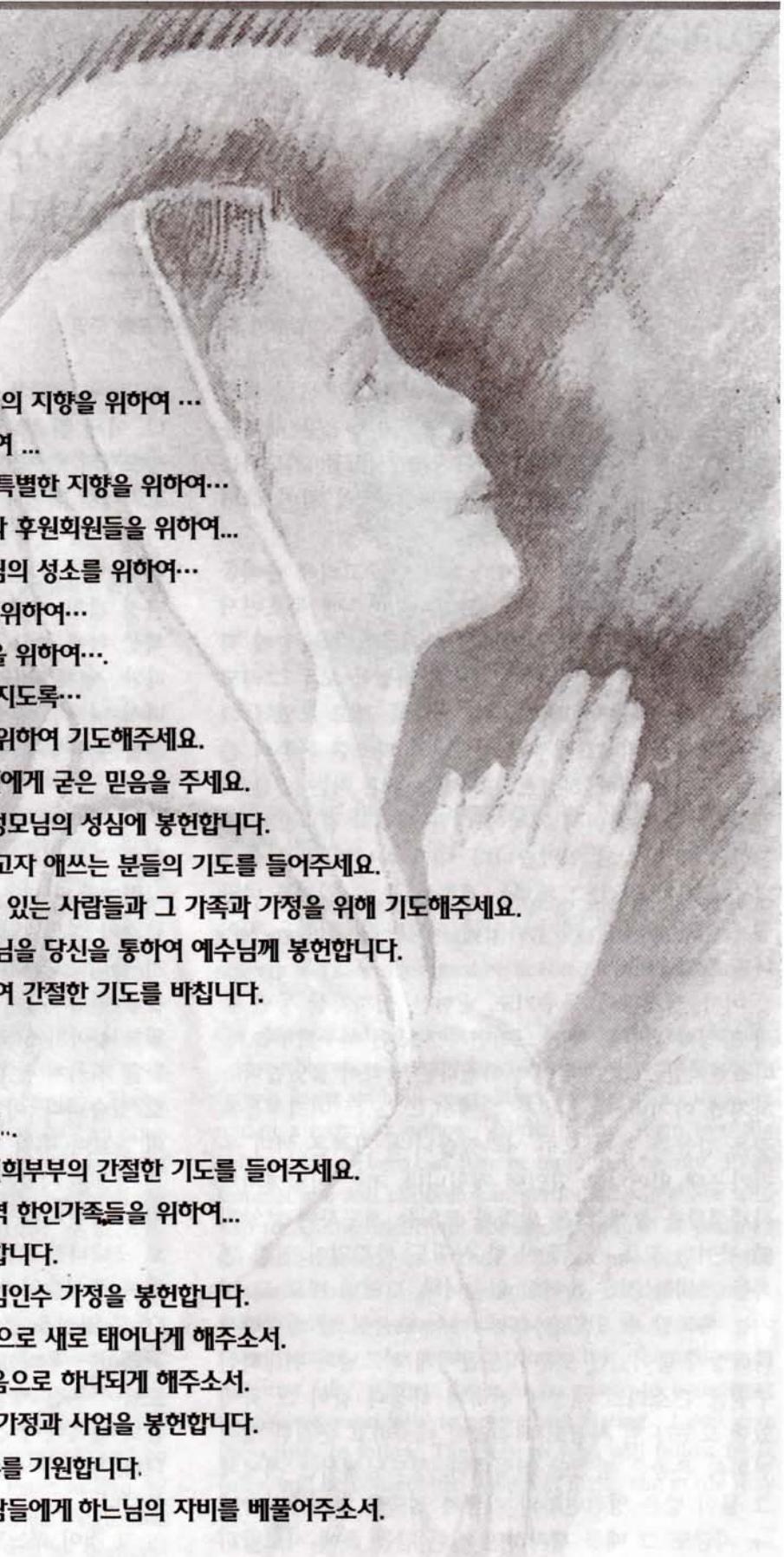


양 옆에 큰 틈이 생겼지만 그 때마다 두 기둥으로부터 부드러운 미풍이 불어와 금간 곳을 막아주면 틈이 벌어지는 것이 즉시 멈추어졌다. 그리고 적함의 대포들이 폭발하고 총이나 다른 무기들과 뱃머리가 부서졌고 많은 배들은 산산히 부서져 가라앉았다. 격분한 적들은 복수를 하려고 안간힘을 썼다. 갑자기 교황이 부상을 당해 쓰러졌으며 주변 사람들이 그를 도우러 달려갔다. 교황이 두 번째로 맞아 쓰러져서 사망하자 선장들은 다시 모여 새 교황을 선출하였다. 새 교황은 적들을 패퇴시키고 배들을 두 기둥 사이로 항진시켜 멈추게 하였다. 그는 뱃머리의 줄을 성체가 있는 기둥에 걸려있는 닻에 묶어 고정하고

반대편은 티없는 성모님이 서 있는 기둥에서 내려온 다른 닻에 고정하였다. 교황은 용감하게 싸웠던 작은 배들을 우선 두 기둥에 묶어 안전하게 보호하였다. 전투가 두려워 퇴각해서 조심스럽게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던 많은 배들도 이 두 기둥을 향하여 돌아와 두 기둥 사이에 배를 묶어 교황이 탄 지휘선과 함께 안전하게 되었다. 적들은 완전히 패배하여 도망갔으며 바다는 다시 잠잠해졌다. □

(출처: Apparitions of the Blessed Virgin - 1999 Developments)

성모님과 함께 드리는 기도

- 
- "성체의 해"를 선포하신 교황님의 지향을 위하여 ...
 - 교회와 사제, 수도자들을 위하여 ...
 - 어머니 마을을 위한 성모님의 특별한 지향을 위하여...
 - 평화의 모후 선교회 봉사자들과 후원회원들을 위하여...
 - 수도원에 들어간 발바라 자매님의 성소를 위하여...
 - 배종한 미카엘, 이경난 가정을 위하여...
 - 이 세실리아의 영혼과 가족들을 위하여...
 - 냉담 중인 아들의 신앙이 지켜지도록...
 - 대녀와 대자들의 신앙 생활을 위하여 기도해주세요.
 - 토마스, 데레사, 사이몬.엘리사벳에게 굳은 믿음을 주세요.
 - 소피아와 마이클을 예수님과 성모님의 성심에 봉헌합니다.
 - 예수님, 믿음으로 가정을 지키고자 애쓰는 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 술, 도박, 마약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과 그 가족과 가정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 성모님, 이삭이의 건강과 부모님을 당신을 통하여 예수님께 봉헌합니다.
 - 성모님, 아이들의 성소를 위하여 간절한 기도를 바칩니다.
 - 강희중 가정을 위하여...
 - 이카타리나 가정을 위하여...
 - 트렌顿 구역원 가정들을 위하여...
 - 성모님, 새 생명을 기다리는 저희부부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세요.
 - 불법체류로 고통 받는 가주지역 한인가족들을 위하여...
 - 표현경 자매님의 가정을 봉헌합니다.
 - 정수현, 이지현, 이혜옥, 김정순, 김인수 가정을 봉헌합니다.
 - 성모님, 남편과 자녀들이 성령으로 새로 태어나게 해주세요.
 - 헬레나 가정을 봉헌하오니 믿음으로 하나되게 해주세요.
 - 성모님과 함께 요한 형제님의 가정과 사업을 봉헌합니다.
 -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딸의 치유를 기원합니다.
 - 진실로 회개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자비를 베풀어주세요.

“우리는 세상을 지키는 사람들로서 하나로 뭉쳐야 합니다.”

표 진 천 신부
밀워키 한인 천주교회 주임



성모님을 바라보면서 은혜로
왔던 메주고리예 마을을 새겨봅
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마을, 평화와 기도의 힘이 스며
있는 곳...

제가 처음 메주고리예 순례를
갔을 때 그 곳 마을에 묵으면서
생각났던 단어들입니다. 함께 했
던 20여명의 사람들 모두 그리도
다른 삶의 상황에서 전혀 다른 기대를 갖고 모였던 그
날 어쩌면 이미 그 때부터 성모님의 따스한 은총의 손
길은 우리와 함께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저는 사실 메
주고리예를 향하면서 기적에 대한 체험의 갈망으로 온
근한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내가 아니면 일행 중에
그 누군가가 직접 그 체험을 전하여 줄 수 있기를 바랐
던 것이죠. 하지만 제가 바랐던 이렇다 할 기적은 일어
나지 않았습니다.

미사, 성체강복, 묵주기도, 발현산, 십자가산 등반 등
의 정성과 희망을 봉헌 드리면서 보냈던 하루하루는 참
따스했지만 그래도 무언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날의 미사 속에서 그 모든 어리석음은
깊은 감동과 함께 모두 사라졌습니다. 기적은 이미 우
리가운데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제까지의
사제생활을 통해 많은 피정과 모임을 지도하여 보았지
만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영적 변
화를 가지는 것을 본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날
저는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 오순절 날 성령께서
다락방에 숨어있던 모든 사도들에게 하느님의 위대하신
구원을 큰소리로 세상에 전하게 하심과 같이 그 곳에
있던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깨끗하고 순결한 영적
변화의 은총을 받았던 것입니다. 성모님께서는 저에게
그들이 받은 영적변화의 기쁨과 성숙을 보여주셨습니
다. 지금도 그 때를 생각하면 진한 감동 속에 사로잡히

게 됩니다. 벽차오르던 그 기쁨이 너무나 감사로웠습니
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 이 감사로움을 마음에 담고
성모님과 함께 생활하리라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메주
고리예를 다녀 온지 어느덧 3년이 지난 오늘 저는 아직
미숙한 점이 많은 부끄러운 모습의 사제임을 고백합니
다. 돌아온지 얼마되지 않아서는 메주고리예 성모님의
다섯 개의 메세지를 상징하는 다섯 개의 이쁜 돌들을
책상 위에 놓고 실천의 노력을 기울이며 열심이었습니다
만연제부터인가 그 돌들은 장식용으로 전락하고 또
다시 나태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때 그
분들은 어떻게 생활하고 계실까? 궁금합니다...

저는 여기서 메주고리예 순례를 다녀온 한 사제로서
형제, 자매님들께 청원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메주
고리예를 다녀온 우리 모두는 그 체험의 작고 큼에 상
관없이 성모님안에서 무언가 한 가지씩 느끼고 결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사람
들이 얼마나 그 선물들을 추억 속에 묻어둔채
잊고 살아가게 되거나 어느 경우는 도리어 성모님의 선
물을 지키지 못함으로 오는 실망 감에 좌절하는 사람들
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
며 돌보아 주지 못함에서 오는 결과입니다.

신앙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은총속에서
빛을 발합니다. 성모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메주고리예
로 초대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신앙의 은총을 선물
하여 주셨습니다. 이 은총은 우리 안에서 지켜져야 하
고 그 결실을 풍성히 드려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된 마음으로 메주고리예 성
모님이 주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다섯 개의 돌을 우리
들의 삶속에서 실천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어야합
니다. 우리는 세상을 지키는 사람들로서 하나로 뭉쳐야
합니다.

그 것이 하느님이 성모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바라시



는 것입니다. 메주고리에 성모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하여 하나가 되어주십시오. 그리고 그 것을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함께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할 때 자신이 직접 성모님을 위한 어떤 일들을 크게 이루지 못한다 하더라도 성모님의 메시지를 위한 우리의 바램과 작은 노력들이 하나로 모아져 마침내 크나큰 은총의 결실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현재 세계 각국에서 메주고리예를 다녀간 순례자들은 당신의 메시지를 온 세상에 전해달라는 성모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자신들의 나라 말로 여러 가지 메주고리예 소식지를 만들어 성모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말로 된 것은 평화의 모후 선교회에

서 발행하는 “메주고리예” 소식지 한가지뿐인데 이것을 이끌어 나가는 데에도 어려운 재정난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메주고리예 처럼 성모님과 함께 기도하는 마을을 미국의 펜실바니아주 안에 똑같이 이루어 바쁜 이민생활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보다 쉽게 메주고리예의 믿음과 어머니의 메시지를 지속 적으로 전하고자 계획된 어머니 마을도 한 두 사람의 힘과 재력으로는 도저히 이를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기도와 작은 정성들이 모일 때 성모님의 은총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작은 정성들이 긴박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성모님께서 당신을 기다리십니다... □



평화의 모후 선교회 후원회원

홍세실리아, 김영순, 유화연, 이사비나, 박아네스, 횡운옥, 이윤정, 문순임, 이복자, 김정희,
김윤희, Lee Cecilla, 이로사, 한인숙, 신동배, 한율리안나, 이윤정, 김영희, 이광순, 박광현,
정세실리아, 이성윤, 박지나, 잔슨 윤숙, West Michaela, 이마리아 캐롤, 이아네스, 김세실리아,
이카타리나, 김우련, 강희중, 김크리스틴, 송란규, 김요셉, 표현경, 강진희, 김진미, 박혜정,
익명(\$500)

보내주신 후원금 이렇게 사용되었습니다.

21호 소식지는 총 6000부를 인쇄해서 미주 지역에 3,800부, 한국에 1500부, 카나다에 600부를
발송했습니다. 21호 발행을 위하여 보내주신 후원금과 지출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출 (22호 소식지)

인쇄, 발송, 원고료	\$ 5,320.00
통신비	\$ 479.00
교통비	\$ 376.25
기타 비용	\$ 410.00
지출 합계	\$ 6,585.25
• 후원금 합계	\$ 4,345.00
• 부족금	\$ 2,230.25

(부족한 금액은 7월
순례에서 남은 이익금
으로 보충시켰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교회에서는 모든 후원 회원님들의
가정과 기도 지향을 위하여 매
월 첫 토요일과 메주고리예 순례
때마다 성모님께 미사를 봉헌해드
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기도 모임의 목적은 사랑을 얻고자 하는 것이란다

엠마뉴엘 수녀



수 많은 순례자들이 성모님의 발현 23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메주고리예에 모였다. 이 특별한 행사로 천국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고 모든 얼굴들은 광채로 빛났다.

성모님의 메시지는 참으로 단순한 것 같으면서도 현 시대와 앞으로 다가 올 미래에 중대한 핵심이 된다. 이 날 우리 성모님께서는 각 나라에서 온 수 많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다음과 같은 비밀을 말씀하셨다. "기도 모임은 아주 힘이 있다." 왜 성모님께서는 "성당들은 힘이 있다." 아니면 "가정들은 힘이 있다." 혹은 "신학생들은 힘이 있다"라고 말씀 하지 않으셨는가? 이것은 설명 할 필요도 없이 지금의 가정이 과거에 비하면 얼마나 힘이 없어졌는지를 나타내고 있다.

평화의 여왕께서는 교회와 세상을 위한 가장 큰 희망을 이 기도 모임들 안에서 찾으시는 것이다. 성모님은 이 기도 모임들 안에서 새로운 오순절의 사랑이 하루 속히 오기를 기대하시는 것이다. "나의 자녀들아, 나는 이 기도회를 통하여 성령께서 이 세상을 위하여 일하시는 것을 본단다."하고 말씀 하신다. 과거에도 이 작은 기도 모임들은 공산국 통치하에 있으면서도 신앙을 간직할 수 있게 했다. 오늘 날의 유럽은 어두움의 지배를 받고 있는 물질 문명과 사탄의 사상 그리고 창조주 하느님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법들을 선택함으로서 스스로 박해를 받고 있다. 기도 모임을 만들려면 하느님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일치할 수 있는 두 세 사람으로만도 충분하다. 그동안 수천개의 작은 기도 모임들이 이 메주고리예의 정신을 이어 받아 각 처에서 태어났다. 어떤 기도 모임은 참으로 작지만 하느님께 보시기에는 너무나 소중한 모임이다. 어떤 것이 정말 홀륭한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을 일치하여 주님 안에서 매일 성장하는 것이다. 참으로 강한 힘은 이 일치 안에 들어있다. 이것은 대단히 훌륭한 것이고 사탄이 몹시 무서워하는 큰 힘이 있는 것이다.

고스파께서 메주고리예에 처음 오셨을 때, 메주고리예 가정과 프란치스코 수도자들은 이미 든든한 크리스챤의 삶을 살아 갈 수 있게 준비 되어 있었다. 그런데 성모님은 당신이 직접 이 기도 모임을 만드시고 인도 하셨으며 더 나아가서는 그 기도 모임에 참석 할 젊은이들의 이름까지 지적해 주셨다. 성모님은 성당과 그 가정들을 축복하시며 이끌어 주셨다. 그러나 성모님께서는 이러한 기도 모임이 오직 하느님 안에서 한 마음으로 일치하여야만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셨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기도 모임의 목적은 기도가 아니다. 그것은 사랑이다!" 기도는 사랑을 얻고자 하는 방법이기에 공동체와 가족 안에서의 기도가 가장 아름다운 기도 모임들이다! 가족들의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성모님께서는 "너희들의 첫 기도 모임이 가족기도 모임 이기를 바란다"고 하셨다. 가정이 든든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서로 일치하여 하느님 안에서 사랑하며 살아 가는 것이다. 공동체나 성당들 그리고 다른 크리스챤의 모임들 역시 마찬가지다. 기도 모임들은 가정이나 성당 구성원들의 대화를 이끌어 주는 역할을 한다. 기도 모임이 정말 살아 있고 말과 행동들이 일치하여 뿌리를 내리며 성소가 꽂피우게 될 것이다.

고스파께서 이 젊은이들의 기도 모임에 주신 철저하게 짜여진 기본 골격은 서로를 받아 드리는 선행이 반드시 따라야 함을 요구하고 계신다. 본능적인 감정(개인 성격)이나 흥미(오늘날 점점 이런 곳으로 흐르고 있지만)들을 자제하고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뿌리시는 초자연적인 기쁨과 조건없는 사랑으로 바꾸어야 한다. 성모님의 요구하시는 극기와 희생은 처음에는 무척 심하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이 학교에 들어와 배우는 그 어떤 멤버도 후회하지 않고 따랐다. 이곳이 바로 "엄마가 이끄시는 하느님의 학교이다!" 오늘날 젊은이들은 이런 인도가 절실히 필요하고 또 이것을 찾고 있다. (우리는 젊은이들에게 완전한 복음을 전하기를 두려워한다. 우리는 그들이 낙심할까봐 아니면 그들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순간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았는지. 그러나 많은 성인들이 장미처럼 아름다운 이미지의 크리스챤 삶을 살아



왔다면 과연 성인이 되었을까? 참으로 이런 쉬운 길의 가톨릭 가르침이 많은 공동체 자리들을 텅텅 비우게 만들지는 않았는가?)

1983년 6월, 고스파는 엘리나 바실리(성모님의 말씀을 내적으로 듣는 사람)를 통하여 처음 시작하는 기도 모임에게 규칙을 주셨다. 이 규칙들은 항구한 삶을 살며 삶에 보람을 느끼기를 간절히 찾는 청소년들이나 성인들의 마음에 깊은 확신을 주리라고 나는 확신한다.

1. 인간적인 모든 열정과 지나친 용망들을 다 포기하여라. 텔레비죤 특히 악한 프로그램들, 지나친 운동, 과음과식, 술 그리고 담배 등을 멀리하여라.

2. 너희들의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여 그 어떤 제한도 없이 모두 하느님께 의탁하여라.

3. 너의 마음에 있는 모두 고민들을 송두리째 제거하여라. 누구든지 하느님께 자신을 완전히 맡긴 사람들은 그 어떤 걱정도 그 마음안에 남아 있을 수가 없다. 어려움이 계속 오겠지만 그것들은 너희들의 영적 성장에 도움을 줄것이고 하느님께 영광이 된다.

4. 너희들의 원수들을 사랑하여라. 너희들 마음에서 미움, 독함 그리고 선입견등을 모두 버려라. 너희들의 원수들을 사랑하고 하느님의 은총을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여라.

5. 일주일에 두번 물과 빵 만으로 단식하여라. 최소한 일 주일에 한 번씩은 꼭 기도 모임을 하여라. *

6. 온 마음을 다하여 하루에 최소한 3시간씩 기도하여라. 아침과 밤에 30분씩, 그리고 미사와 묵주기도도 이 시간에 포함시켜라. 그리고 하루 일과중에 기도 시간을 마련하고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거룩한 영성체를 모셔라. 깊은 묵상 속에 기도하여라. 너희들의 시계를 자꾸 보지 말고 너희들의 자신을 하느님의 은총에 맡기어라. 너희들 자신이 세상 일에 휩쓸리매이지 않도록 하고 모든 것은 기도안에서 하늘에 계신 하느님께 의탁하여라. 만일 너희가 세상일에 집착하고 몰두하면 내적 고요가 부족하기에 기도할 수 없게 된다. 하느님께서는 하느님의 뜻 만

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의 끝맺음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신다. 학교를 다니거나 직장을 다니는 이들은 아침과 저녁시간에 30분씩 기도하고 시간이 허락하면 가능하다면 매일미사에 참여 하여라. 우리가 하는 일에 기도의 힘을 불어 넣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인데 이것은 다시 말하며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기도 안에서 완성하는 것이다.

7. 하고자 하는 일에 신중하여라. 마귀는 자신을 하느님께 봉헌한 이들, 특히 이런 이들을 끈질기게 유혹한다. 그는 우리가 기도를 너무 많이 한다고 유혹할 것이고 단식을 너무 많이 한다고 말 할 것이며 다른 젊은이들처럼 세상이 주는 흥미를 찾아야 한다고 말할 것이다. 그들이 절대로 이 마귀의 유혹을 듣지 않고 따르지 않게 하여라. 동정 마리아의 목소리에만 그들이 귀를 기울이도록 하여라. 그들이 믿음으로 강해지면 마귀는 더 이상 그들을 유혹하지 못하게 된다.

8. 주교와 교회에 책임을 맡고 있는 이들을 위하여 많은 기도를 바쳐라. 기도 모임에 참석하는 이들은 이 지향을 위하여 더 많은 기도와 희생을 바쳐라.

1983년 5월 23일, 성모님께서 엘리나에게 말씀 하셨다. "어떤 것에도 주저하지 않고 온전히 의탁하며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젊은이들 20여명을 모아라. 한달 전에 그들에게 연락하여 모이게 하여라. 20명이 넘어도 된다. 어른이나 어린애들이나 누구든지 이 규칙을 지키고자 하는 이들은 다 모이게 하여라. 나는 이들에게 어떤 희생을 요구할 것이다. 그들은 주교를 위하여 단식하고 희생하며 그들이 가장 아끼는 것들 즉 커피, 술, 오락, 텔레비죤 등을 극기 할 수 있어야 한다. 수도자의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도 이곳에 모여야 하고 다른 이들은 기도와 극기로 봉헌을 하고자 하는 마음의 준비를 하여야 한다. 내가 그들이 지켜야 할 규칙들을 주겠다. 이 규칙들을 따르는 이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의 삶을 봉헌하게 될 것이다." M

(평화의 모후 기도회에 대한 안내는 17페이지에 있습니다.)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다. 나와 함께 기도하고 기뻐하여라.

신경남 스테파노 신부
종교교육학박사
옥수동 본당 주임 신부



미국의 어느 한국인 종신 부제님께서 강론 중에 하신 말씀이 기억난다. 그분에 의하면 성모님께서는 예수님께 천상 모후의 관을 받으셔서 하늘에 계시지만 그분에게 주어진 옥좌에 편안하게 앉아 계실 수 없다고 하신다. 어머니에게는 하늘의 그 자리가 가시방석이란다. 왜냐하면 이 지상에 살고 있는 그분의 자녀들인 우리가 너무도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기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 끊임없이 걱정하시고, 구원자이신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찾아오셔야 하기 때문이란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공감을 했다.

그렇다. 천상의 모후이신 어머니 마리아께서는 교회와 세상이 처해 있는 위기 상황에 남몰라라 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마치 당신의 아드님 성자 예수님께서 하느님이시면서도 인간이 되어 우리들 가운데 오시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일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 가운데 계속해서 나타나시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신 자애로우신 어머니이시다.

1981년 6월 24일 처음으로 메주고리예에서 발현하기 시작하신 복되신 어머니, 평화의 모후께서는 지금까지 많은 메시지를 주셨다. 그 핵심 주제들에 대해서는 지난 호에서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한 바 있다.³ 이번 호에서는 어머니의 발현 23주년이 되는 지난 6월 25일 주신 메시지에 대한 묵상을 나누어 보고자 한다.

모든 메시지의 서두에서 그러하셨듯이 어머니께서는 6월 메시지에서도 ‘사랑하는 자녀들아!’라는 말로 시작하신다. 요한 복음 19장 26-27절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바로 코앞에 두신 그 극도의 고통 속에서 어머니 마리아와 사도 요한을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로 맺어주셨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 인류 전체를 상징하는 인물이다.

이를 뒷받침해주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서 성모님을 부르실 때 비록 우리 한국말 성서에는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를 비롯한 다른 성서 번역본에는 ‘어머니’ 대신 ‘여인이여’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 즉, 예수님은 성모님을 그리스도인들의 어머니를 넘어서서 모든 인류의 어머니로 세우시기 위해 당신의 어머니를 ‘여인’이라고 부르신 것이다.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하는 인류 전체의 어머니이신 성모님께서 우리 모두를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라고 부르신다. 어머니께서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 ‘여인이 자기의 젖먹이를 어찌 잊으랴! 어미는 혹시 잊을지 몰라도 나는 결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이사 49: 15)라고 말씀하신 하느님의 사랑을 어머니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직접 보여주고 계신다. 우리에 대한 성모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분이 있다. 그분은 내가 미국에서 함께했던 평화의 모후 기도회에 열심히 참석하는 분이었다. 그분은 이전까지 성모님에 대한 애恸한 마음을 느껴본 적이 없는데 부인이 메주고리예 순례를 하는 동안 자기도 모르게 성모님의 사랑을 강하게 느꼈다. 그분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주어진 어머니의 사랑에 온 마음이 사로잡혀 부인이 돌아올 때까지 눈물을 흘리면서 한없이 묵주 기도를 바쳤다. 그런 그분이 한 번은 여러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이런 고백을 했다. “저는 하루 종일 운전을 해야 합니다. 저는 운전을 하는 중에도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면서 어머니와 함께 묵주 기도를 바칩니다. 이제는 제 친어머니 없이는 살 수 있어도 성모님 없이는 못살겠습니다.” 이 고백에 담긴 진실함에 내 마음 속에 큰 감동이 일었던 기억이 있다.

우리를 언제나 사랑으로 품으시고 우리의 이름을 다정하게 부르시는 어머니께서는 우리에게 고맙다고 말씀하신다. 왜 거룩하신 어머니께서 우리에게 고마움을 표현하시는가? 우리가 당신의 계획이 실현될 수 있도록



애쓰고 있기 때문이다. 어머니의 계획은 무엇인가? 사탄의 유혹에 빠져 죄를 짓고 평화를 잃어버린 우리들 자신, 우리 가정, 교회, 그리고 세상을 예수님께로 회개하게 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를 얻도록 하시려는 것이다. 무엇을 통해서? 바로 어머니께서 주신 사탄과 이길 수 있는 다섯 개의 조약돌, 즉 기도, 성체 성사, 성서, 단식 그리고 고백 성사를 통해서다. 우리가 어머니의 계획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들 자신이 먼저 이 다섯 개의 조약돌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한다. 입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구체적으로 먼저 살고, 이를 다른 이들도 함께 살도록 권유하고 모범을 보임으로써 어머니의 계획이 실현되도록 도와드려야 한다. 사실 이 길이 궁극적으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기도 하다.

어머니의 초대는 개인적이고 인격적이면서도 대단히 공동체적이다. 어머니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동시에 우리의 기도 안에 세상의 평화를 위해 도구가 된 모든 사람들이 기억되고, 더욱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다. 복되신 어머니 마리아께서는 말씀하신다.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다. 회개하여 세상에서 평화의 도구가 된 모든 사람들을 위해 나와 함께 기도하고 기뻐하여라.” 예수님은 홀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이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셨고, 심지어 제자들마저도 그분의 그러한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때 어머니께서는 홀로 그런 당신 아드님의 뜻을 전적으로 이해하셨고, 그 길을 함께 걸으셨다. 한 사람의 힘은 미약해 보일 수 있으나 주님의 손에 쥐어진 도구가 될 때에는 큰 힘을 발휘한다. 하느님께 구원 사업에 자신을 온전히 봉헌하는 사람들이 여럿 모인다면 그 때는 더 큰 힘이 생겨난다. 하느님의 구원 사업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도가 선행되어야 한다. 기도하지 않는 개인, 기도하지 않는 공동체에서는 하느님의

기운, 즉 성령의 움직임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래서인가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기도 모임들은 참으로 힘이 있단다. 어린 자녀들아, 나는 기도 모임들을 통해 성령께서 이 세상 안에서 활동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단다.” 모든 가정의 식구들이 매일 같이 한 자리에 모여 기도를 하고, 모든 본당 전체 혹은 여러 소그룹들이 함께 마음으로 기도를 바치는 그곳에서 하느님의 능력, 용서와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성령께서 힘차게 활동하실 것이다. 그렇게 기도를 통해 성령 충만하게 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매일 주님께로 끊임없이 회개하고, 평화의 도구가 되기를 어머니께서는 간절히 바라신다. □

신경남 신부님은 메주고리에 성모님께서 주시는 크신 사랑을 체험하고 당신의 사제직을 성모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삶으로 봉헌했습니다. 그 후 4번에 걸친 메주고리에 순례중에 성모님께서 시작하신 “평화의 모후 기도회”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사명감으로 위에 있는 기사의 내용에 관련된 초창기의 기도회원들의 증언을 직접 만나서 들으며 기도회에 관련된 슬라브코 신부님의 책과 음악, 영문책들, 그리고 기도회와 관련된 자료들을 수집, 번역했습니다. 또한 직접 기도회를 이끌면서 진행순서와 음악등을 성모님께서 처음에 주셨던 내용을 기초로 하여 정리하였으며 곧 소책자로 발행하여 보급할 예정입니다. (편집자 주)



사제들에게 전하는 성체의 메시지 (Messaggi eucaristici per i sacerdoti)

윤 종식 디모데오 신부
(서울대교구)

“마리아의 원죄 없으신 성심은 오늘 날 거룩한 성체를 보다 열정적인 사랑으로 찬양하고 흡모하는 모든 사제들과 특별한 애정으로 함께 하십니다. 오늘날, 성체는 성인으로 불리우는 사람만이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며 목자에게는 성화의 특별한 길을 위하여 무한한 은총들을 쏟아내는 힘을 주는 천상의 양식이 됩니다. 그리고 죄 속에 있는 많은 영혼들과 지옥을 두려워 하지 않는 위험한 영혼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이끌어 줍니다.”

1993년 5월 8일

나의 자녀들이여! 나의 성체와 성혈을 무한한 사랑으로 찬양하십시오. 이것으로부터 오는 영원한 생명은 단지 그대들의 마음뿐만 아니라 성부로부터 보다 멀리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도 나누어지고 함께 할 수 있도록 나의 그 무한한 사랑 안에서 그대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세상이 자신의 죄 안에 갇혀있는 동안에도 은총의 날들은 항상 우리 곁에 있습니다. 성체는 사랑과 믿음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위로 받는 창조물들을 마치 타오르는 횃불처럼 빛나게 합니다.

세상은 파멸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제들이여! 자녀들이여! 신앙의 무기들을 움켜쥐고 나의 성혈과 성체로 무장하고 성장하십시오. 내 마음의 순수함과 무한한 나의 자비가 자신들의 마음에 홀려 들어오기를 기다리지 않는 그대들의 모든 형제들에게까지도 넘칠 수 있도록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나를 찬미하십시오.

나의 빛과 사랑, 그리고 나의 자애만이 빛날 수 있

도록 그대들의 인간적인 겸손함, 영의 가난과 사랑으로 늘 내 이름을 찬미하십시오.

나는 항상, 그대들에게 함께 있겠습니다. 나는 꺼지지 않는 빛으로 모든 이에게 가까이 있으며, 이는 하느님의 영광을 다시 되찾고 어두움에 빛을 밝혀 주기 위해서입니다. 내 성심 안에서 홀려 나오는 한없는 사랑으로 그대들을 축복하고 늘 함께 하겠습니다. 아멘.

1993년 5월 15일

내 마음은 그대들의 마음을 통하여 세상 곳곳에 비추어 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위해 나의 깊은 애정으로 그대들을 감싸 안으며 내 사랑으로 그대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대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있습니다. 다만 나의 이 선물이 (성체와 성혈) 커다란 기쁨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내 모든 자녀들에게 이것을 주기 위해 겸손한 마음에서 나오는 무한한 사랑과 커다란 자애로 그것의 참된 의미를 잊지 않도록 하십시오.

나는 그대들을, 내게 오고자 하는 길 잊은 양떼의 목자가 되도록 불렀습니다. 그대들에게는 내 양떼들을 나에게 인도하고, 내 거룩한 성체와 성혈 안에 늘 그들이 가까이 올 수 있도록 밤낮으로 나를 찬미하게 해야 할 사명과 의무가 있습니다. 오직 이러한 방법으로 나는 언제나 그대들 안에 있고 그대와 함께 곁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 안에 늘 머무를 수 있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끊임없는 노력으로 그대들의 마음을 모든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짜꺼기로부터 깨끗하게 정화시켜야 아버지이신 그 분께 갈 수 있습니다. 이 지상의 삶에서 생명의 참된 의미와 본래의 사명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그대들의 곁에 이것 (성체와 성혈)을 가까이 두고 내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영혼이 늘

성모님의 메시지

"사랑하는 자녀들아!

오늘도 역시 내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하다.
나는 내 계획이 실현될 수 있도록 애쓰는 너희들에게 진정으로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단다. 어린 자녀들아,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다. 회개하여 이 세상에서 평화의 도구가 된 모든 사람들을 위해 나와 함께 기도하고 기뻐하여라. 기도 모임들은 참으로 힘이 있단다. 어린 자녀들아, 나는 기도 모임들을 통해 성령께서 이 세상 안에서 활동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단다.

나의 부름에 응답해주어 고맙구나."

2004년 6월 25일

나의 곁에 함께 머물도록 하십시오.

겸손과 자애로 내가 주는 이 능력 안에 함께 있어야 합니다. 즉, 그대들을 사랑으로 성화 시켜 사랑의 사도들로 활동하게 하여, 이 세상을 나의 사랑으로 뒤엎을 수 있는 사랑의 능력을 그대들에게 주고자 합니다. 사랑, 사랑, 나의 사랑을 이 세상에 주십시오. 이것은 나의 거룩한 성체 안에 완전하게 있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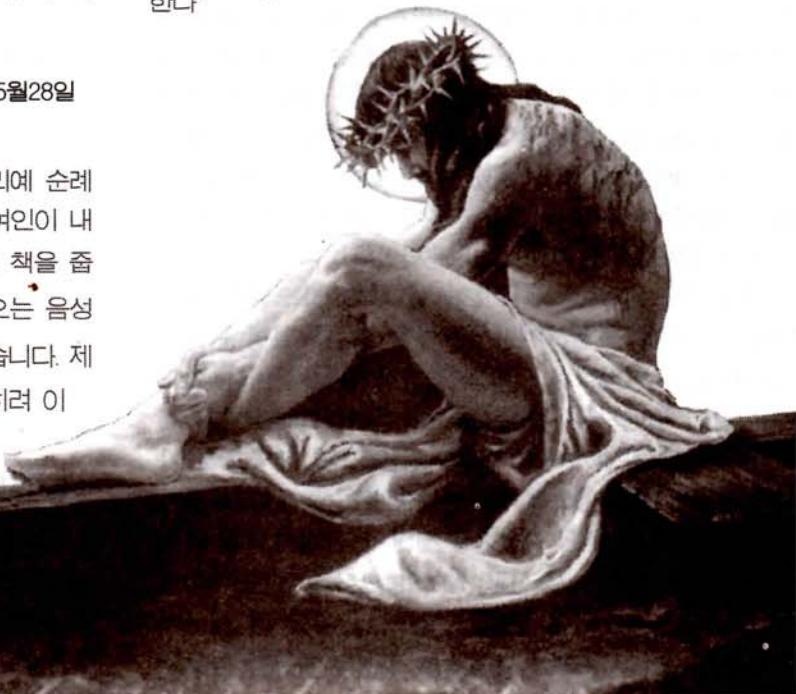
그대들의 삶의 중심에 항상 이것(성체와 성혈)이 함께 있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내 몸과 피를 통하여 그대들이 사랑으로 성화하고, 사랑의 사도로 활동하게 하기 위함이며, 나는 그대들의 안에 들어가, 변화시키고, 내 성심 안에 새로 태어나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대들 모두가 늘 평화와 기쁨 안에 있기를 원하며, 그대들은 언제나 내 이름으로 사랑을 선포하십시오. 나는 그대들을 내 성심으로 축복하고, 보살피며, 함께 하겠습니다. 아멘. □

* 이 성체의 메시지는 1993년 4월 27일부터 2000년 5월 28일 까지 26번 주어졌습니다.

2003년 10월, 전 북미주지역 한인교우들의 메주고리예 순례 그룹의 지도신부로 참여하고 있던 어느날 한 외국여인이 내게 작은 소책자를 전해 주었습니다. "왜 저에게 이 책을 줍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 여인은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듣고 신부님께 드리는 것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제가 읽어보니 교회의 교리에 어긋나지 않았으며 오히려 이 메시지는 신앙을 가진 모든 이들에게 전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부족하나마 번역을 시작했습니다. 이 메시지는 사제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성체를 모시는 모든 신앙이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누가 메시지를 들었는지 정확하게 확인은 못했지만 이 성체의 메시지는 1993년 4월 27일부터 2000년 5월 28일까지 26번이 주어졌으며 이 책의 첫째장 밑에 이런 각주가 있습니다. "이 메시지들은 성체에 대한 신심이 강한 사람의 영적 지도신부를 통해 전해졌다. 이 사람은 겸손과 신중함을 지니고 익명성을 유지하기를 원한다"





나는 하느님이 계시다는 것을 이 세상에 알리려고 왔다.

1981년 6월 24일 저녁 공산치하에 있던 유고슬라비아(현재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중서부 산골의 작은 마을에 6명의 10대의 소년 소녀들에게 갑자기 성모마리아께서 강렬한 빛에 둘러싸인 ('태양을 입고' 묵시 12장) 모습으로 발현하셨다. 성모님께서는 "나는 평화의 모후이다."라고 하시며 "나는 하느님이 계시다는 것을 이 세상에 알리려고 왔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로 부터 23년이 지난 오늘 날에는 처음 발현을 본 6명중 3명에게는 성모님의 매일 발현이 끝나고 특별한 기념일에만 성모님의 발현을 보며 남은 3명만이 지금도 매일 성모님의 발현을 보고 있다. 1991년부터는 목격자 중의 한사람인 마리아를 통하여 매월 온 세계에 전하는 메세지를 주시고 계시다. 그 당시의 본당 신부이신 요조 죄브코 신부는 발현을 믿지 않고 미사만 끝나면 산으로 달려가는 신자들을 야단쳤지만 신자들은 시간만 나면 산으로 갔다. 1981년 7월 2일 목요일 저녁 미사 전 로사리오 기도 중에 성모님께서 성당 안에 발현하셔서 기도를 중단하고 성모님께 성가로 인사를 드렸다. 그 때에 성당 안에 있던 신부님과 모든 신자들은 성당 맨 끝에서부터 빛에 싸여 제대 쪽으로 오시는 성모님을 목격했다. 성모님께서는 세상 끝 날까지 이 미사를 계속하라는 말씀 (1981. 10. 6)을 하셨으며 그때 부터 지금까지 메주고리예에서는 저녁 미사 전에 묵주기도와 미사, 성시간을 매일 3시간 정도 드리게 되었다.

그로부터 23년이 지난 오늘 날 까지 하느님의 어머니께서는 매일 발현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안다면 너희는 기쁨의 눈물을 흘릴 것이다. 기도가 기쁨이 될때 까지 기도하라"고 하시며 바로 지금 이 시간 우리들이 회개하고 변화되지 않으면 죄악으로 가득찬 이 세상에 정화의 시간이 올때는 회개할 시간이 없다고 경고 하셨다. "나는 이 세상이 회개하고 변화되어 하느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너희에게 알리려고 왔다. 이 후로는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에 발현하지 않을 것이다." (1982. 5. 2)라고 하시며 성모님

께서 메주고리예에 발현하시는 목적은 인류를 멸망으로부터 구원하시려는 것이며, 하느님의 구원 계획에 쓰시려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셨다. (1987. 1. 25)고 말씀하셨다. 성모님의 발현을 목격하는 중인들과 그 본당의 신자들과 그 곳을 순례하는 순례객들은 성모님께서 선택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너희들을 초대하고 있다. 나는 너희들이 필요하단다. 그 때문에 내가 너희를 선택하는 것이다. 너희들 없이는 나는 이 세상을 도와 줄 수 없단다." (1996. 8. 28) 전세계의 각국에서 수천만명의 많은 사람들이 메주고리예에 오고 있다. 왜? 꼭 와야 하는가? 세계의 모든 성당의 미사 때에 감실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모님이 계시는데 왜 하필 이 먼 곳 메주고리예까지 와야만 하는가? 하는 물음에 선견자들 중에 한 사람인 마리아 파블로 비치는 이렇게 대답했다. "메주고리예에서 성모님께서는 특별한 체험의 은총을 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메주고리예는 기도를 가르치는 "기도의 학교"이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학교'입니다. 성모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아,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하여라. 기도가 너희들이 매일 살아가는 양식이 되게 하여라." (1985. 5. 30) 기도는 강력한 무기라고 말씀하시며 "사랑하는 자녀들아, 지금 이 시대에는 어두움의 세력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단다. 사탄은 실제로 존재하고 있으며, 가정과 교회와 각 사람들의 영혼을 파괴하고 분열시키기 위하여 끊임없이 일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들을 모든 악으로부터 보호하고 영적으로 성장 하여 사탄과 대적할 수 있는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5개의 조약들을 주셨습니다.

5가지의 조약들 (메세지)

1. 기도와 로사리오

"기도는 인류를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이고, 자연까지도 바꿀 수 있으며 기도할 때에 하느님께서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주신다는 것을 알아라." (1987. 4. 25)

2. 가능한 한 매일미사 참례

"미사는 하느님께 바치는 가장 위대한 기도이다. 너희는 미사의 위대함을 결코 깨달을 수 없을 것이다. 그 때문에 너희가 미사에서 너희 자신을 완전하고 겸손하게 준비하여야 되는 것이다. 성령께 너희 마음을 열어라. 그 분께서 너희의 마음을 통하여 일하실 수 있도록 하여라." (1988. 4. 25)

3. 매일 성서 읽기

"모든 가정들은 가정기도를 바쳐야 하며 매일 성서를 읽고, 그리고 언제나 읽고 묵상할 수 있도록 성서를 잘 보이는 곳에 놓아 두기 바란다." (1984. 10. 18) "너희들은 성서를 잊어 버렸구나." 하시면서 아주 슬퍼 우셨다고 합니다.

4. 단식과 회개

"단식과 기도로써 전쟁도 중단시킬 수 있고 자연 법칙도 변경시킬 수 있단다." (1982. 7. 21) 악마는 기도와 단식 말고는 쫓아낼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 하셨습니다. (마르 9. 29) "수요일과 금요일에 빵과 물만으로 철저히 단식하여라." (1984. 8. 14)

5. 한 달에 한 번 고해성사

성 야고보 성당

메주고리예는 서부 헤르체고비나의 치트룩에 속한 여러 마을 중 하나이다. 본당을 구성하는 다섯 개의 마을 (메주고리예, 비야고비치, 비오니카, 밀레티나, 수르만치) 중 가장 큰 마을 이기 때문에 본당도 이 마을의 이름을 붙인 것이다. 최근 들어 이 마을은 전 세계 카톨릭의 성지 순례자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장소가 되었다. 슬라브어에 기원을 둔 메주고리예라는 말은 "산들 사이에 있는 지역" 이라는 뜻이다.



메주고리예 본당의 지역은 해발 200미터에 위치한 지중해성 기후의 영향을 받는 곳으로 포도와 담배, 과일을 재배하기 이상 적인 곳이다. 메주고리예 본당은 1892년에 기초가 놓여졌으며 순례자들의 수호 성인인 야고보 성인을 주보 성인으로 모셨다. 공사가 시작된 지 5년만에 성당이 완공되었다. 그 때 당시에는 충분히 크고 아름다웠지만 지반이 약한 땅 위에 세워졌으므로 곧 가라 앉고 갈라졌다. 그래서 1차 세계 대전이 끝난 후 새 교회를 짓기 위한 계획이 세워졌고 1969년 1월 19일에 완공되고 축성되었다. 그 때에는 이 성당은 주민이 400여명 밖에 안되었는데 2000명이 들어갈 성당을 지으려고 하니 주변의 사람들에게서 조차 거의 관심 밖이었다. 그러나 1981년 여름에 메주고리예 교회는 전 세계로 부터 수백만의 순례자들을 모으는 초점이 되었다. 거기 메주고리예에서는 세계의 평화와 구원의 전제조건으로 믿음과 기도, 회개와 단식 등의 필요성에 대한 메시지가 순례자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성모님의 발현 시작 이후 교회와 그 주변은 점차로 개발 되었다. 옛날 교회의 자취는 현재의 성전 왼쪽의 도로 안의 공원에 보존되어있다. 메주고리예에는 현대세계에 있어서 독특한 사건이다. 최근 수십년 동안 메주고리예에는 전세계로부터 카톨릭 만이 아니라 개신교, 모슬렘, 정교회 등에서 약 3000만 이상의 순례자들이 다녀갔다. 메주고리예에서 그들은 다시금 평화와 인간다움과 하느님과의 친밀감을 발견했고 진리와 사랑과 평화의 증거자들이 되었다.

성모님의 발현산

크르니카의 언덕위에 성모님께서 첫 번째로 발현하



셨던 장소를 보통 발현언덕이라고 부른다. 비야코비치 마을의 집들로부터 가파른 언덕을 오르면 성모님께서 발현하신 장소가 나온다.

이 성모님의 발현산을 찾는 수백만의 순례자들의 발길로 인해 조금은 더 넓혀져서 야고보 성당에서도 그 길을 알아 볼 수가 있다. 평평한 아스팔트에 젖어 살던 수 많은 순례자들이 맨발로 혹은 무릎으로 성모님께서 처음 발현하셨던 이 곳을, 날카로운 돌들을 밟으며 올랐다. 이 장소까지 올라가는 언덕길의 중간 쯤에 나무로 만들어진 십자가가 있는데 이 곳은 성모님께서 1981년 6월 26일에 세 번째로 발현하셨을 때 마리아 파블로비치에게 발현하신 곳이다.

평상시 성모님께서 발현하시는 장소에서 발현을 겪은 후 마리아는 다른 선견자들에 앞서 뛰어서 언덕을 내려가던 중 바로 이 곳에서 마리아는 다시 한 번 성모님을 봤었다. 그러나 이 때는 성모님께서 슬픈 얼굴을 하셨고 뒤에는 큰 십자가가 있었다. 손을 움직이시며 성모님께서는 "평화, 평화, 평화 오직 평화를! 평화가 하느님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사람사이를 다스려야 한다." 오늘 날 이 곳은 순례자들이 멈추어 서서 평화가 그 어느 때 보다 필요한 오늘의 인간과 세계를 가르쳐 하신 성모님의 메시지를 묵상하며 기도 중에 머문다.

성모님께서 발현하셨던 장소는 직경이 수백 미터에 이르는 바위로 된 울퉁불퉁한 커다란 공터인데, 수백만의 순례자들의 발길로 이제는 바위들 사이에는 풀한 포기 자라지 않는다. 성모님께서 발현하셨던 장소에는 한 무더기의 돌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었는데 지금은 한국 사람이 남북통일을 기원하며 봉헌한 성모상이 모셔져 있다. 연중 어느 때나 개인적으로 혹은 단체로 이 곳을 찾아 기도하고 노래하며 침묵과 명상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발견 할 수 있다.

십자가 산(크라자밧)

메주고리예 본당으로부터 약 1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발현 언덕이 있는 크르니카산을 날개로 하여 솟아있다. 해발 500미터 정상에는 예수님의 수난 1900년을 기념하

여 8.56미터 높이의 콘크리트 십자가가 세워져있다. 이 십자가는 인류의 구세주 예수그리스도께 믿음과 사랑과 희망의 증표로 사제 베르자디네 스몰랸과 메주고리예 본당 신자들이 이 십자를 세웠다. "예수님 모든 악에서 우리를 구하소서"라는 글이 새겨져 있다. 성모님께서는 이 십자가 산에서 동이 틀 때까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주시고 계신다고 한다.

이 십자가에는 세워질 당시 로마로 부터 받은 유물이 들어있다. 이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십자가 나무의 한 부분이라고 존경받는 십자가 조각이다. 이 조각의 가장 큰 부분은 로마에 있는 성 십자가 성당에 보존 되어 있다. 이 십자가는 1934년 3월 15일에 완성 되었다. 성모님의 탄생기념일 후 돌아오는 첫 째 주일에 예수님의 십자가 수난을 기념하여 밑에서 거룩한 미사가 봉헌된다.

사람들은 성모님의 발현과 그 메세지를 하느님과 사람 그리고 사람들 사이의 평화와 연결시켜 해석 한다. 평화로 이르는 길은 십자가 없이는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성지 순례 중의 봉헌과 보속의 의미로 십자가 산의 길에는 15처에 각처마다 청동으로 만들어진 조각이 있고 이 조각에는 성모님의 모습도 새겨져 있다. 이 것은 십자가의 길 인 우리의 삶에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미 한다.

청십자가

1981년 발현 초기에는 본당신부님 조차도 성모님의 발현을 믿어 주지 않으셨다. 그 당시 공산주의자들과 경찰들은 발현을 기톨릭 프란치스코회 사제들과 6명의 아이들과 주민들이 정부를 전복시키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생각하며 아이들을 잡아 가려고 왔을 때, 아이들이 청십자가에 있는 가시나무 뒤에 숨어있었다. 경찰들은 이 곳까지 왔지만 아이들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성모님께서 아이들을 보호해주신 이 곳에 청 십자가를 세웠다. 이 곳은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면 성모님께서 들어주신다고 한다. □

어둠에서 빛으로 . . .

"주님의 사랑은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2004년 5월 2일부터 18일 까지 메주고리예의 체나콜로와 하느님 사랑의 자녀회 회원들로 구성된 음악 선교단이 한국으로 음악 선교를 왔다. 이들은 분당에 위치한 아시아에서 가장 큰 성요한 성당을 비롯, 남양 성지와 13곳의 성당을 방문하였으며 김수환 추기경님을 만나 그분을 위한 개인연주도 하였다. 어둠의 생활에서 빛으로 돌아와 마약, 알코올 중독 등을 이겨내고 부활의 삶을 살고 있는 이들은 "예수님께 당신의 마음을 여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은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젊은이들은 마약과 인터넷, 포르노처럼 일시적인 쾌락과 같은 것들에 빠져들고 있으며 파괴되어 가는 가정에서 상처받고 있습니다. 모두 물질만능주의의 결과입니다. 당신을 사랑하시는 하느님께 자리를 내드리십시오." 하고 말한다.

미래가 없었던 자신들이 이렇게 살아 가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말하는 이들 가운데 20여명은 과거의 자신들처럼 길을 잃고 방황하는 젊은이들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 사제와 수도자가 되었거나 준비 중이며, 일부는 남미의 벼려진 아이들을 위하여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음악 선교는 메주고리예를 알고 있는 한국의 신부님들과 친구들이 계획하였으며 현재 로마에 거주하면서 메주고리예 본당의 모든 행사에

서 한국말 통역봉사로 성모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남마다 자매가 통하여 동행하였다.

체나콜로 공동체 : '다락방'이란 뜻을 지녔으며 메주고리예에서 성모님 전구를 통해 예수님께서 주시는 치유의 기적을 체험한 젊은이들의 공동체이다. 1983년 엘비라 페트로치 수녀에 의해 창설되었으며 로마 바티칸에 지도 신부가 있다. 현재 미국의 후로리다를 포함하여 크로아티아, 이탈리아, 브라질 등 세계 45개국에 남 여 공동체가 따로 운영되고 있다. 공동체에서 배출된 사제들이 있으며 많은 수도자와 지원자가 있다.

하느님 사랑의 자녀회 : 기도와 고통, 희생과 봉사로 변화된 사람들로 구성된 메주고리예의 열매이다. 창설자는 원래 이탈리아의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였으나 메주고리예 성모님을 체험한 후 세상의 화려함을 버리고 수도원에 들어간 로사리오수녀가 10년전에 만든 수도회로서 현재 로마 교황청의 인가를 기다리고 있다. 이들은 "메주고리예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었으며, 성모님께 우리의 삶을 봉헌했다. 우리를 자신도 기도, 고통과 희생의 덕분으로 이렇게 변화된 자신과 회원들을 볼때 놀라울뿐이기에 우리들의 유일한 바램

은 하느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 선교단의 일행인 로렌드(35)는 이태리 가수였으며 어릴 때부터 마약과 알코올에 빠져 방탕한 생활을 했던 문제아였었다. 롤렌이 처음 메주고리예를 방문했을 때는 메주고리예에 담배밭이 많은 것을 보고 담배밭만 찾아 다녔었다고 한다. 그러나 메주고리예에서 체험한 성모님의 사랑은 그를 하느님 사랑의 자녀회 수도원 소속으로 이탈리아 볼로냐 신학교 과정을 마치도록 변화시켰다. 로렌드는 하느님 사랑의 자녀회 수도원이 교황청의 인가를 받는 대로 서품을 받고자 기다리고 있으며 자신의 체험을 음악에 담아 어둠에서 빛으로 이끌어 주신 주님과 성모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있다.

멜린다(29)는 음악인 부모에게 물려 받은 천부적인 재능으로 16살 때부터 일본과 유럽을 오가며 무대에 섰었다. 유럽의 쥬비 메탈 오케스트라의 수석 바이올리니스트로서 장래가 보장된 촉망받는 음악인이었던 멜린다는 연주할때 마다 첫번째곡으로 아베마리아를 성모님께 봉헌하면서 연주 생활을 하던 어느 날, 메주고리예 성모님의 부르심을 느끼며 메주고리예로 갔다. 그 후 성모님께서 자신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고



느낀 멜린다는 음악가로서 보장된 자신의 앞 날을 하느님 사랑의 자녀 회 수도원에 봉헌하였다. 그의 애잔한 바이올린 선율은 성모님 품으로 찾아든 상처 받은 많은 영혼들의 마음을 열어 위로하고 회개시키는 천상의 음악으로서 아름다운 메주고리 예 열매 중의 하나가 되어 있다.

다음은 이들이 음악 선교를 위해 한국을 방문한 후 가진 인터뷰 기사 중 일부이다.

루디자 페리스: 당신은 한국의 추기경이신 김수환 추기경님께 음악을 연주해 드렸다구요?

멜린다: 네, 우리는 5월 8일, 한국의 어버이날에 그분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집무실에서 연주하였습니다. **루이지 바실:** 김추기경님께서는 한국의 평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신분입니다. 그분은 우리들이 들려 드린 음악에 깊이 감동 하셔서 저희의 모임에 한번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5월 13일에 우리가 연주하는 한 성당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메주고리예에 대한 훌륭한 증거를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한국의 신부님들과 신자들이

그들의 정신적 지도자이신 김추기경님이 메주고리예 성모님의 메시지를 알고 있으며 옹호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루디자 페리스: 당신들의 음악적인 역할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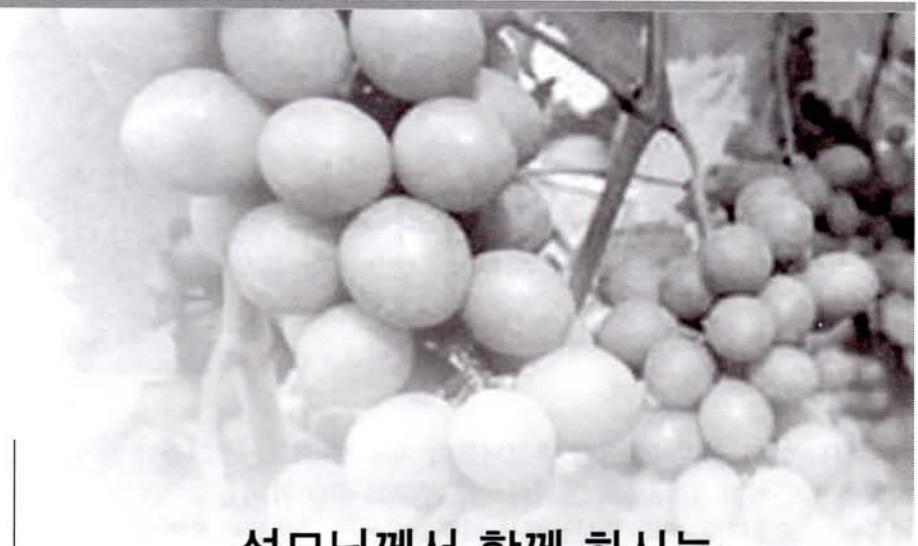
로렌드: 우리그룹은 메주고리예의 열매입니다. 별로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이제 거의 10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창설자이신 이태리의 수녀이신 마더 로사리아 수녀님과 함께 기도모임 형식으로 형성 된 단체입니다. 메주고리예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었고, 우리는 성모님께 우리의 삶을 봉헌한 평신도 단체로서. 우리의 유일한 바램은 하느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자신도 우리가 기도와 고통과 희생의 덕분으로 이렇게 된 저희자신과 그룹을 볼때 놀라울뿐입니다. 메주고리예 본당의 삶이 저희들의 삶입니다. 우리공동체는 기도와 함께 본당에서 필요로 하는 각 행사에 따르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공동체의 사명입니다.

멜린다: 저는 마더 로사리아와 이

그룹을 1996년에 메주고리예에서 만났습니다. 그것은 생전에 저와 마더 로사리아, 그의 기도그룹의 초창기부터 영적지도 신부님이었고 또한 음악가들을 많이 도와주시던 슬라브코 신부님이 이끄시는 성체조배에서 제가 연주를 하게 되었을 때입니다. 저는 기도하는 삶을 함께 하는 생각에 매우 이끌리고 있었고 지금처럼 다른 젊은이들과 함께 주님을 위해 연주하고 노래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메주고리예와 이 그룹안에서 모든 음악적 감각이 성장하는 은총과 가능성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마더 로사리아와 이 공동체에서 저에게 하느님의 자녀, 성모님의 자녀로서 또한 예수님과 성모님의 바이올리니스트이며 예술가로, 봉사하며 살아 갈 수 있도록 여러가지의 각별한 후원을 받고 있기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루디자 페리스: 메주고리예의 모든 음악가들은 훌륭합니다. 그 중에서도 멜린다. 당신의 바이올린은 좀 특별한데요. 무엇 때문입니까?

멜린다: 저희 부모님도 음악가이십니다. 제가 태어났을때, 저희 어머



나는 온 마음으로 저를 성모님께 봉헌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태종에서부터 음악과 함께 성장하였죠. 제생각엔 성모님께서 저에게 어떤 계획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분은 저를 선택하셔서 저를 사용하셨습니다. 저는 독일에서 석사를 마쳤습니다만, 저에게 있어 음악은 기도입니다. 저는 연주를 할때마다 먼저 하느님께 봉헌합니다. 음악은 제가 하느님과 성모님께 드리는 마음의 목소리입니다.

찬양 연주팀에서 나이가 가장 많은 잔 프랑크(45)도 20년간 마약에 빠져 살다 마흔이 넘어 공동체에 들어갔다. 그는 "공동체 창설자 엘비라 수녀님이 '기도하면서 너희 무릎이 아프기 시작하면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증거'라고 말했는데 공동체 생활 5년째가 되니까 서서히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또 "한 때 '어두운 암흑에서 살다가 빛으로 돌아온 자신의 과거를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다"고 말했다.

평화의 모후 선교회에서는 이 음악 선교단을 초대하여 어두움에서 빛을 향한 이들의 삶이 담긴 체험담과 음악회 행사를 주관합니다. 11월 7일부터 23일 까지 미주 지역과 캐나다에 대한 자세한 일정은 평화의 모후 선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모님께서 함께 하시는 "평화의 모후 기도회"는 어떻게 하는가?

매주고리에에 발현이 있을때 6명의 목격증인외에 2명의 내적 담화자가 더있었다. 성모님께서는 그 중의 한사람인 엘리나에게 기도회를 하라고 말씀하시며 앞으로 그 기도회를 어떻게 이끌어야 하는지를 자세히 가르쳐 주셨다.

처음부터 기도회에 참석하였던 한기도회원은 그 당시 있었던 한예를 들어 성모님께서 초창기의 기도회를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지를 이렇게 전해주었다.

그 당시 공산치하에서 생활하던 우리들은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몰랐습니다. 어느날, 성모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문을 외어 보아라" 하시자 아이들은 성모님께 자랑이라도 하듯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하며 입에 배인 기도문을 외웠습니다. 성모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참 잘하는구나. 이번에는 나를 따라 해보아라." 하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시더니 잠시 침묵하신 후 다시 기도를 시작하셨죠. 기도가 끝난후 아이들이 "성모님, 왜 기도중에 잠시

멈추셨나요?" 하고 물어 보았을때 성모님께서는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바치는 소중한 기도란다. 그러기에 처음에 시작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그냥 외우는 것이 아니란다. 우리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잠시 생각하며 그 분을 가슴에 모시고 나머지 기도문을 바치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는 기도가 된단다"라고 말씀하시며 어떻게 하면 기도의 영이 함께 하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평화의 모후 기도회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신분은 선교회의 (610-965-6168)로 연락하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느님과 사람들의 만남의 장소



교회의 고위 성직자들이신 주교님들이 자주 메주고리예를 방문하고 있다.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교구의 대주교인 게오르그 엘더 몬시뇰께서 메주고리예를 방문하시고 다음과 같이 메주고리예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다.

"메주고리예에 성모님께서 발현하신다는 이야기는 시작된 지 얼마되지 않았을 때부터 들었습니다. 최근에는 발현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으며 가톨릭 교회의 주교로서 거의 매 주 발현과 환시와 계시에 대한 것들을 보고받고 있습니다. 공산통치기간 동안에도 메주고리예를 가볼 기회가 있었지만 그곳을 가보고자 할 충분한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주 내 자신에게 질문해 보았습니다. 왜 성모님께서는 그토록 오래동안 발현하시며 기도, 단식, 속죄와 평화의 기도에 대한 단순한 메시지의 요청을 아직도 반복하고 계시는 것일까? 그 물음에 메시지는 내 자신에게 이런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더 깊은 뜻이 있다. 우리들의 어머니를 보면 어머니는 자녀들을 위해 항상 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성모님께서도 우리들의 어머니이시기에 메주고리예에서도 똑같이 하십니다.

성모님께서는 "이전에도 너희들에게 말했지만 지금도 멈출 수가 없구나. 기도, 기도하여라"라고 이미 어른이 된 자녀들에게 어린 아이들을 대하시듯이 같은 말을 하고 계십니다. 본당의 사제들은 신자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항상 기도하기를 요구합니다. 요한 바오로 2세는 사제들은 가장 우선으로 기도를 하여야 하며 기도의 교사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좋으신 어머니이신 성모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분께서는 "기도가 기쁨이 될 때까지 기도하라."고 하시며 우리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간단한 비유로 가르쳐 주십니다. 나는 성모님을 통해 주시는 하느님의 말씀이 참으로 진실되다는 것을 느낄만한 열매들을 메주고리예에서 보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가 열립니다. 그 열매를 보면 여러분들은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나 제가 이 곳에서 본 것은 놀라운 것이 아닙니다. 잘쓰부르그의 신자들이 자주 메주고리예에 다녀오고 있으며 또 새로운 기도모임들이 시작되는 것을 보았고 그 곳을 다녀온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전해 들었습니다. 나는 메주고리예에서 성소를 받았다. 그리고 믿음 생활에 가장 중요하였지만 그동안 잊어버리고 있었던 세 가지의 은총인 속죄, 회개, 성소를 메주고리예에서 다시 찾았다. 오늘 날 고해성사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지 않기에 더 이상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고해성사는 그 성사가 갖고 있는 참된 의미를 추구하며 살아 가지고 있는 수도회의 교회와 본당을 제외하고는 소멸되어 가고 있으며 영적인 성소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메주고리예에 오는 순례자들은 고해성사의 은총을 체험하고 회개하고 성사생활로 돌아오고 있으며 영적인 성소가 꾸준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느님께서 바로 나 자신과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회개의 은총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성서에서 말씀하신 회개가 우리에게는 필요 없습니까?

지금의 시대는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고해성사는 실종되고 있으며 영적 성소는 점점 줄어들고 있기에 신학교를 유지해야 하는지 조차도 스스로에게 묻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 모든 답을 메주고리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메주고리예에서는 사람들에게 사라졌던 은총들이 살아 나고 있으며 우리는 신앙 안에서 필요한 것들을 다시 발견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가지 소망이 더 있습니다. 이 곳의 프란치스코회와 주교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져 성모님께서 원하시는 지향대로 메주고리예가 전해지기를 바라는 것이지요. 나는 이 곳에 오기 전에도 메주고리예를 믿었지만 와서 직접 보기 를 원했으며 지금 메주고리예의 진실성을 믿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교회의 정신 안에 있으며 발현 목격자들과 본당 저녁 예절의 단순함에서도 그 진실성을 확인합니다. 굳은 믿음이 있으며 교회에 대한 강한 신뢰가 있으며 무엇보다도 성사와 회개를 통한 새로운 삶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교회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추구하고 있는 것들이고 영적인 생활을 하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동시에 이 시대에서는 사라져 가고 있는 것들이기에 오늘날에는 교회가 해결해야 할 큰 문제였습니다. 나는 이 곳에 와서 보았기에 메주고리예에 대해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다른 어느 곳보다도 메주고리예는 영적으로 하느님께 가까이 있습니다!' 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추기경과 주교들의 메주고리예 방문

에콰도르에서 오신 파야길라의 은퇴하신 대주교이신 베르나르디 에체베리아 루이즈 추기경과 빅토르 마르도 나주교님이 메주고리예를 방문하셨다. 툴카노의 제르만 파본 푸엔테 주교와 퀴토의 카를로스 알타미라노 주교도 개인적으로 메주고리예를 방문하시고 다음과 같은 그 분들의 순례 소감을 말해주었다.

질문: 메주고리예에 대해서는 언제 처음으로 들으셨는지요?

베르나르디노 에체베리아 루이즈 추기경 : 이미 오래 전부터 들었습니다. 그 때부터 무척 이 곳에 오고 싶었지만 가능하지가 않았었는데 이 곳에 오게 되어 참 행복합니다. 성모님의 메시지는 지극히 성서적이기에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이 곳 본당 공동체를 체험해보고 이 곳에서 홀륭한 일을 수행하고 있는 프란치스코회 수도자들을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실제적이고 복음화적인 삶입니다.

어제 저녁 미사에 참석했을 때 묵주기도와 미사 봉헌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나에게 정말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우리가 미사 전에 로사리오 기도를 하는 동안 모든 봉헌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내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성모님께서 주신 메시지 외에도 이 곳에서 그분의 현존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이 곳에서 마리아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뿐만 아니라 현대 문명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나라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이 곳에 관광을 목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

라 성사를 통하여 자신들의 삶 안에 계시는 하느님과 만나기 위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느님께서 이 세상에 신성한 은총을 내려 주시는 때입니다. 성모님의 현존과 메시지, 이 곳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은 자신들과 교회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곳에서 모든 유럽이 회개하기 시작한 것을 느낍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심으로 고해성사를 하려고 기다리는지 보았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수의 사람들이 매일 미사를 하고 영성체를 봉헌합니다. 사목 일을 하는 우리가 사람들을 위해서 있어야 한다는 것은 가장 중요하고 첫째가는 일입니다. 이곳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요. 내가 메주고리예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느끼고 이 곳의 크로아티아 국민들 그리고 프란치스코 수도회 형제들을 만나게 된 것을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질문: 메주고리예에서 받으신 인상은 무엇입니까?

빅토르 마르도나도 주교 : 베르나르디노 추기경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메주고리예는 하느님과 사람들이 만나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구원의 참 원천이 있습니다. 누구나 이 곳에 오면 그 사람은 우리 모두가 회개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즉시 이해하게 됩니다. 이 곳에서 발현 목격자인 마리아를 만났지요. 발현 중에 그녀와 함께 기도하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진실로 우리의 임무를 완수하고 회개하고 있는 이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회개가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이번의 메주고리예 방문이 내게 신앙 안에서 많은 것에 눈을 뜨게 하고 일생 중에 해야 할 모든 임무 안에서 많은 일들을 다르게 할 것임을 인정합니다.

질문 : 돌아가시면 주교님을 의지하는 교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건지요.

나는 메주고리예에서 크리스천의 삶에서 함께 하는 어머니이신 마리아의 역할을 확실하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내겐 엄청난 은총이라고 여깁니다. 바로 그 점을 사람들에게 말할 것입니다. □

해마다 다르게 발전하는 중국, 그러나…

김기수 신부

아씨시의 성 프란치스코 성당 한인 공동체주임, 평화의 모후 선교회 자문신부

2004년 1월 15일 목요일

한국에 도착하여 왜관의 성 베네딕도 수도원에 가서 제병기계를 기증 받아 서울로 싣고 왔다. 세 개나 되는 기계가 생각 보다 너무 무거워서 애초에 비행기로 가지고 가려던 계획을 바꾸어 중국 목단강 본당까지 직접 화물로 부쳤다. 인천공항에서 대전목장의 구사장님 가족 분들과 만나 함께 동행하였다. 서울의 김 사장님의 딸 헬레나가 중국에 함께 가겠다고 하여 일주일 예정으로 동행하기로 했다. 지난 해 까지만해도 겨울에는 끊어지던 인천-연길간 항공편이 생겨 편안하게 중국에 도착하였다. 지난 겨울에는 직항 항공편이 없어 장춘을 경유하였는데, 장춘에서 날씨로 인해 항공편이 끊어지는 바람에 그 많은 짐 가방을 들고 다시 기차로 오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하였던가? 중국은 해마다 다르게 발전하는 것을 절실히 느낄 수 있다. 그러나 북한에 사는 우리동포들은 점점 더 비참한 생활로 퇴보하는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으니…

연길 공항에 내리니, 냉장고 안에 들어간 느낌이다. 살 속으로 파고드는 쌀쌀한 기온과 마치 얼굴을 면도칼로 가르는 듯한 날카로운 바람이 나를 맞는다. 지난 5년 간 많이 익숙해졌고 정겹기까지 한 만주벌판의 차 가운 바람이다. 연길공항도 많이 변했다. 공항의 전자 검색기계가 들여오고, 전에는 무사통과(?) 하던 짐 검사도 매우 엄해져서 모든 짐을 검색 대에 통과하도록 해야한다. 대전목장의 구 사장님 댁 자매님께서 가지고 들어오던 천주교성당의 카세트 테이프를 몽땅 압수당했다. 종교적인 목적으로 들여오는 것으로 알고 압수한 것 같았다. 참으로 답답한 나라이다…

2004년 1월 16일 금요일

아침에 대전목장의 구 사장님과 요안나 자매님과 함께 목장에서 이 곳에서 거의 일 년만에 미사를 봉헌하였다. 정성껏 향을 피우고 마음을 다해 봉헌하고 성체

를 모셨다. 미사 후 아침식사를 마치고 대전목장 아녜스 자매님의 딸, 레지나의 약혼식이 도문에서 있어 그곳에 참석한 후 오후 1시쯤 헬레나를 데리고 화룡으로 향하였다. 한국에 있을 때부터 탈북동포 여러 명이 화룡에서 내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었기에 오늘 가기로 약속했기 때문이다.

연길에서 화룡가는 도로가 공사중으로 도로 곳곳을 파헤쳐 놓아 연길에서 화룡까지 1시간 30분 걸리던 것이 오늘은 2시간도 더 걸렸다. 화룡에 도착하자 련정호 집사님 댁에서 그 분의 단칸방 집에 숨어있던 7명의 탈북자들과 련집사, 부인, 어린 아들을 만났다. 그곳에는 폐병이 들어 숨쉬기조차 힘들어하는 39살된 박철균씨와 그의 5살된 어린아들, 굶어 죽게되어 식량 살 돈을 구하기 위해 무산에 있는 집에 차사고로 다리가 절단된 어머니와 여동생을 남겨두고 중국으로 왔다는 27살된 리영일씨, 5년 전 중국으로 탈북하였다가 체포되어 15년 형을 받고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39살 된 딸의 어린 세 자녀들과 병들어 죽은 아들의 두 자녀들을 도맡아 기르고 있지만 이번 겨울에 먹을 것이 없어 죽은 아들의 친구가 중국에 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중국까지 데려다 주어 중국에 오게 되었다는 64세 된 진정심 할머니, 함경남도 집에 간복수로 누워있는 어머니를 두고 왔다는 17세된 김영순양, 어린 딸을 집에 두고 식량을 구하러 왔다는 함경남도에서 온 리명화 자매님, 맹장수술 후 수술이 잘 못되어 몇 년째 일어나지도 못하고 있는 머느리 때문에 두 손자 손녀를 돌보며 소토지 (나이가 많아 강제노동에 나갈 수 없는 노인들이 산꼭대기나 못쓰는 땅을 개간해서 개인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허락된 것)를 해서 살아가는데 올 겨울은 도저히 살아갈 식량이 없어 중국으로 왔다는 무산에서 오신 69세 된 김봉녀 할머니였다. 련집사 댁도 단칸방에 몹시 가난하게 사는데, 탈북자들 7식구가 와서 거의 보름을 함께 지냈다고 한다.



련집사 부인은 참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착한 분이시다. 오늘은 급히 오느라 돈을 충분히 가지고 오지 못해서 내일 다시 와서 주기로 하고 우선 련집사에게 사람들에게 옷을 사주라고 중국돈 1,500 위안과 내일 박철균씨를 병원에 데리고 가서 진찰을 받도록 당부하며 1,000 위안을 주고 나왔다.

그리고 바로 또 다른 집에 숨어있는 4명의 탈북청년들을 만나러 갔다. 그들은 강철호 전도사 집에 숨어있었다. 집에 간복수로 누워있는 어머니와 여동생을 두고 왔다는 21살 된 김철민, 무산의 집에 약혼녀와 병든 부모님을 두고 온 27세 된 김강혁. 그는 오는 3월에 결혼을 해야 하는데, 집에 먹을 양식조차 없어 무조건 중국으로 넘어왔다고 한다. 함경북도 회령의 집에 18세 된 여동생만 두고 왔다는 21세된 김영남. 그 와 함께 함경북도 회령에서 온 21세 된 남성철, 이렇게 4명의 청년들에게 헬레나가 200 달러씩을 주고 내가 각자에게 갈 때 차비로 쓰라고 중국 돈 100 위안씩을 주었다. 그 다음에 만난 사람은 작년 1월에 만났던 차경준 (42세)씨와 그의 두 번째 부인과 딸이다. 본 부인은 4년 전에 중국으로 넘어왔다가 체포되어 감옥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올 해 풀려났으며 집에는 두 아이가 있다고 한다. 지난 해 북한에서 투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포당할 위기에 있어 지금은 피해다니는 처지라 북한으로 돌아갈 수 없으니, 있을만한 곳을 찾아달라고 하여 또 목단강의 사목회장님께 부탁해 볼 생각으로 기다리라고 말하고 돌아왔다.

2004년 1월 17일 토요일

오늘 도문은행에 들려 돈을 찾아가지고 어제 약속한 사람들을 만나러 화룡으로 갔다. 헬레나와 대전목장의 요안나 자매님과 함께 갔다. 각자에게 중국돈 2,000 위안씩을 주고 집에서 가지고 간 장갑, 양말, 옷등을 나누어 주었다. 손주 손녀 다섯을 기르고 있다는 진정심

할머니에게는 따로 밖으로 불러내어 감옥에 있는 딸을 돌보라고 1,000 위안을 더 드렸다. 그리고 가장 마르고 아직도 얼굴이 얼어 있는 리명화 자매님에게는 헬레나에게 비타민 영양제를 몰래 주도록 하였다. 폐병에 걸려있는 박철균씨는 어제 병원에 가서 진찰을 했는데, 한쪽 폐가 완전히 못쓰게 되어 식도까지 한 쪽으로 구부러져 있을 정도로 위험하다고 한다. 숨 쉴 때마다 "쌕쌕" 소리가 난다. 한달 먹을 약을 지어왔는데 한달 약값이 500 위안이라고 한다. 나올 때 련집사 부인에게 수고하셨다고 쌀사는데 보태라고 1,000 위안을 드렸더니 굳이 사양을 한다. 그래도 손에 쥐어주고 나왔다. 집에 돌아오니 또 어떤 집에서 혜산에서 온 할아버지가 기다린다고 도와달라고 한다.

석탄먼지와 쓰레기가 바람에 날리는 화룡의 골목길을 이 곳 저 곳 지나서 찾아간 집에는 보기에는 큰 고생을 한 것 같지 않은 할아버지가 비굴할 정도로 굽신거리며 우리를 맞이한다. 할아버지는 혜산시에서 한의원을 하면서 살았다고 한다. 그러나 북한의 형편이 어려워진 요즘에는 한의원을 찾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 굶주려서 목숨 연명하기도 어려운데 한의원을 찾을 수 있는 형편이 되겠는가? 명색이 한의사인데다가 나이도 많아 어디가서 구걸할 형편도 못되어 이렇게 중국으로 넘어오게 되었다고 한다. 한국이나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들으면 이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작년 겨울에도 의사로 일하던 사람이 살아 갈 길이 없어 광산에서 트럭운전을 하다 중국으로 도망쳐 온 사람을 만나본 나는 이 할아버지가 이해가 된다. 중국 돈 500 위안을 주고 그 집을 나섰다. 벌써 해가져서 날이 어두워졌다. 다시 연길에서 버스를 갈아타고 집에 돌아온 밤이 깊었다. 대전목장에서 저녁을 먹고 너무 늦어 그 곳에서 잤다. □

(김기수 신부님께 도움을 주시고자 하는 분들은 '뉴욕 맨하튼의 프란치스코 한인 공동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사자에서 맡는 어머니의 향기

박 세실리아

부르클린 한인 천주교회

메주고리예를 다녀오는 사람에게 그 곳에서 있었던 너무나 좋은 체험을 들을 때마다 우리 부부도 꼭 한번 그 곳을 가보고 싶어서 "어머니 저희도 불러 주세요" 하며 기도를 드렸는데 어느 날 그 토록 가고 싶어 하던 메주고리예 성지 순례를 떠났다. 가기 전 마음의 준비로 현존하시는 어머니를 체험하고, 우리 가족들의 성모신심이 더욱 깊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그 곳에 도착하여 보니 조그마한 산골 마을, 정말 성모님의 품안에 포근히 안긴 것 같이 평화와 따뜻한 사랑이 넘치는 순수한 마을이였다. 마을 한 쪽에 있는 발현산과 십자가 산에 성모님께서 발현하시어 우리들에게 메세지를 전하는 그 마을, 그리고 우리들에게 그 메세지를 통하여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그 분의 말씀과 진리를 따라서 일상생활을 하도록 인도해주시는 자비하신 성모님이 너무나 감사했다.

그 곳에 가보니 왜 사람들이 메주고리예를 다녀오면 그렇게 행복해 했는지 이해가 됐다. 그 동안 주위에서 여러가지 신비스런 체험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신기해하면서 나도 확실한 체험을 해보았으면 하는 막연한 바램이였는데, 어머니는 저의 이런 소망을 들어주셨다. St. James 성당에서 하는 첫 날 저녁 미사에 참석을 하니 세계 여러 곳에서 이 곳을 찾아 온 순례자들이 가득하였다.

우리 부부는 입추의 여지도 없이 가득찬 사람들의 사이사이를 지나서 제대 맨 앞 자리에 앉았다. 그 당시의 설레는 마음은 어떻게 표현 할수 있을까... 미사 후 성 시간에는 제대위에 성체를 현시해 놓았는데 남편 마르셀리노는 왼쪽에서 또 하나의 성체가 보인다고 했다. 분명히 성체는 제대 위에 있는데 왜 왼쪽에서 또 하나의 성체가 보일까 하면서 다시 확인을 했으나 분명히 제대 중심에 성체가 있는데도, 남편에게는 또 하나의 성체가 보이는 것이다. 비로서 성모님께서 우리에게 당



신을 체험하게 해주시는 것을 깨닫고 진심으로 감사를 드렸다. 남편 마르셀리노는 몇 년전 차사고로 허리를 많이 다쳐서 장궤를 할 수가 없었고 한다 해도 간신히 몇분 밖에 못했다. 그런데 그 곳에서 부터 성모님의 치유가 시작되었다. 거의 50분 동안 장궤를 하고 있어도 아픔이나 불편을 느끼지 못했고 그 이후 부터는 오랫동안 장궤를 하여도 아무런 아픔이나 불편을 느낄 수가 없었다. 그리고 나는 너무나 허리가 아파서 매일 아침 침상에서 일어날려면 적어도 30분 정도는 시간을 소비해야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 그 때부터 현재 까지 힘

**주모경을 외우면서 산을 오르는데 갑자기
향기로운 장미 꽃 냄새가 진동을 하였다.
그러나, 아무리 주위를 둘러보아도
근처에는 장미 나무는 하나도 없었다.**

들게 침상에서 일어나는 불편도 사라졌다. 그리고 나는 위가 좋지 않아서 항상 입에서 심한 냄새가 나서 껌이나 캔디를 늘 입에 넣고 있어야 했다. 그런데 자녀들을 돌보시는 자애로우신 성모님이 베풀어 주시는 치유의 체험이 비스카를 통하여 나에게도 일어났다.

처음에 비스카를 방문했을때는 주위에 사람들이 많아서 가까이 갈 수가 없어 섭섭한 마음으로 돌아왔다. 3일째 되던 날 발현산을 올라 가다가 비스카가 자기 집 앞에서 다른 몇몇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을 보고서 참 좋은 기회다 싶어 비스카에게 가서 치유의 기도를 받고 너무나 기뻤다. 그레고리오 형제님은 우리 일행들에게 발현산 언덕의 설명을 하고 있다가 비스카가 있는 것을 알고 다른 일행도 모두 내려 보냈다. 우리 부부가 나란

히 서서 2번째 치유의 기도를 비스카로 부터 받는 순간 그렇게 심하게 나던 입 냄새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나의 입에서는 싱싱한 향기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 며칠 후, 일행들과 그레고리오씨의 안내를 받으며 함께 십자가 산에 오르면서 십사처 기도를 하면서 올라 갈 때 였다. 나는 발이 불편하여 다칠까봐 신경을 쓰며 조심스럽게 혼자서 산을 올랐다. 앞만 보고 가니 십사처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주모경을 외우면서 산을 오르는데 갑자기 향기로운 장미 꽃 냄새가 진동을 하였다. 그러나, 아무리 주위를 둘러보아도 근처에는 장미 나무는 하나도 없었다. '참 이상하다' 하면서 내 앞을 보니 십사처를 한 처 한 처 지날 때마다 그 앞에서 장미꽃 향기가 나는 것이 아닌가... "성모님 사랑합니다.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들을 메주고리예에 발현하시는 성모님으로부터 체험한 후 부터 저의 하루 일과는 매일 아침 미사를 다니며 미사 전에 5단의 묵주기도를 봉헌하고 있다. 그리고 하루에 20-25 단의 묵주기도를 성모님께 봉헌하고, 매주 토요일 성모님께 촛불을 봉헌드린다.

몇 년전 파티마의 성모님을 방문하였을 때이다. 마르셀리노는 발 뒤금치가 너무나 아파서 발 의사로 부터 수술 날짜를 잡아 놓고 성지 순례를 떠났다. 모두 잠들은 밤에도 우리 부부는 성모님 앞에서 밤새 기도를 하면서 청원을 드렸다. 그런데, 순례 중 많은 걸음을 걸었지만 마르셀리노의 아픈 발의 고통은 어디론지 사라지고 지금 현재도 아무런 불편 없이 생활하고 있다. 자비하시고 한 없는 사랑을 주시는 나의 벗, 나의 협조자이신 성모님께 모든 것을 감사드리면서 매일 성모님 상 앞에 가서 '어머님, 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며 성모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있다.

"나의 어머니이신 성모님, 사랑합니다.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리오니 당신을 향한 이 마음을 받아 주소서." M



표지설명

세계 청소년 대회가 열리고 있는 야외 제대

1969년 그 당시의 본당 신부가 지금의 제임스 본당을 처음 지을 때는 400가구 밖에 없는 동네에서 약 2000명을 수용 할 성당을 짓자 현주민들의 반대가 많았다. 그러나 1981년 성모님의 발현 소식이 전 세계로 알려지면서 많은 순례자들이 메주고리예를 찾아와 성당이 비좁아졌다. 성당을 더 크게 짓기 위하여 세 곳의 장소를 물색해 놓고 목격 증인들을 통하여 어느 장소가 적당한지를 성모님께 물어 보았다. 성모님께서는 "이 세상에는 빈 성당이 많이 있단다. 성당이 없어서 하느님께 예배를 못드리는게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이 하느님을 향하고 있지 않아서 란다." 하고 말씀 하셨다. 성모님의 이 말씀을 듣고 성당을 더 크게 짓고자 했던 계획을 취소하고 만든 곳이 바로 본당의 뒤에 있는 이 야외 제대이다. 청소년 세계 대회와 여름, 그리고 기념 행사가 있을 때는 몇 만명의 순례자들이 오기 때문에 이곳에서 야외 미사를 드린다. 거대한 성체를 현시하고 드리는 야외 성시간과 음악은 이곳에 오는 모든 순례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준다.

성체안에 살아계신 나의 예수님

이정은 아녜스
포틀랜드 한인 천주교회

2001년 5월 남편과 함께 메주고리예 순례를 다녀오고 무척 아쉬운 생각이 들어 다시 한번 꼭! 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2004년 어느 날 우리 빤레시디움에서는 본당 신부님을 모시고 전 단원이 메주고리예 순례를 가자는 지향을 가지고 함께 기도를 시작하였다. 단원 중 한 분이 메주고리예 성모님의 포스터를 붙여 놓으셔서 묵주 기도를 드릴 때마다 메주고리예를 기억하게 해주셨다. 순례 날짜가 정해졌지만 9명의 단원 중 여러가지로 여건이 가장 어려운 두 자매님만이 신청을 하셨고, 그 때 연세가 높으신 한 단원이 주회 도중 작년 7월 자 메주고리예 소식지를 가지고 오셔서 그 자매님과 함께 순례를 하신 지도 신부님의 체험담을 읽어보라고 권유하셨다. 마침 훈화 준비가 안되어 대신 단장님 이 읽어 주셨다. 그 때까지 전혀 갈 수가 없다고 하던 한 단원이 우리 단원이 다 함께 메주고리예를 가자고 제의를 하였다.

나는 가게에 일하는 사람이 없어 함께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전혀 모르는 자매님이 일을 하고 싶다고 나타났다. 주말만 일을 할 수 있지만, 순례 기간 동안은 기꺼이 해주겠다고 해서 저는 성모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것을 느끼며 기뻐하였지만 그 자매님은 몇 번 일을 하다가 그만 두었는데 다행히 전에 저의 가게에서 일을 해본 경험이 있는 학생이 대신 할 수 있게 되어 저는 더 마음 편히 순례를 다녀 올 수 있었다. 순례를 가고자 하는 제 마음을 아시는 성모님께서 배려해주시는 것을 느끼며 감사했다. 결국 우리 빤레시디움에서 5명이 함께 순례를 하게 되어 서로가 무척 신기해 하며 흥분된 마음으로 순례를 떠났다.

나는 첫 번째 순례 때와 마찬가지로 Sprit공항에서 버스를 타고 메주고리예로 가는 순간부터 이유 없는 눈물이 자꾸 흘러 내렸다. 친정 어머니의 집을 다시 찾아가는 감격의 눈물이겠지… 처음 메주고리예 순례를 갔을 때에는 목격증인인 이반의 Talk 때에만 동시 통역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아곱 성당에서 드리는 은혜로운 미사와 성시간에도 남 말다 자매님의 한국말 동시통역이 있어 몇 배로 더 많은 은총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늘 들어오던 말들이었지만 특별히 체나콜로 공동체 형제님의 체험 발표에서 기도는 말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천을 하는 순간 순간이 참 기도라는 것과 유보 신부님의 강론 중 이 곳에서 성모님께서 주시는 체험과 말씀들을 그냥 듣고 느끼고만 돌아가지 말고 성모님과 예수님의 손을 잡고 우리가 사는 세상으로 함께 돌아가 삶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성모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말씀들이 특별히 마음 속 깊이 새겨졌다. 메주고리예에서 보내는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나의 영혼이 현존하시는 성모님 품에서 정화되는 느낌을 받았고 깊은 평화로움이 늘 우리들을 감싸고 있음을 알수 있었다.

순례가 끝나는 마지막 날 새벽, 한 방을 쓰는 친구와 십자가 산을 오르기 위해 나가니 비가 내려 우리는 발현산으로 가기로 하고 아직 컴컴한 새벽을 손전등을 비추며 올라갔다. 발현산 밑의 청십자가가 있는 곳에 먼저 들려 성모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언제 또 다시 이 곳을 올 수 있을까 하는 아쉬운 생각에 슬퍼지며 섭섭한 마음이 들었다. 그러는 중에 어스름이 밝아 오는 새벽 여명 속에 성모님의 얼굴과 손이 살아 있는 우리들 같이 붉은 살색으로 보이며 특별한 느낌이 느껴졌다. 마음 깊이 기쁨과 평화가 가득 차 오름을 느끼며… 두 분의 성모님이 나란히 모셔져 있는 청십자가 산으로 다시 돌아와 어머니의 얼굴과 손을 어루만지며 감사를 드리고 '어머니, 이 곳에 다시 올 수 있게 해주세요'하고 부탁을 드리며 그 자리를 떠났다. 발현산을 오르며 묵주기도를 드리고 숙소로 돌아오는 동안 비가 계속 내려 옷이 다 젖어 들었지만 마음 속에는 기쁨과 평화가 젖어 들어와 마치 빗줄기가 몽땅 은총의 빗줄기 같이 느껴졌다. 아침 9시 한국어 미사를 드린 후 부활하신 예



수님 상으로 갔을 때에는 비가 많이 내린 탓에 아무도 없었다. 우산을 쓰고 조용히 예수님을 올려다 보니 빗물이 예수님의 콧잔등에서 연속으로 떨어지는 것이 마치 예수님이 한 없이 우시며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모습으로 보여 무척 마음이 아파옴을 느끼며 '죄송합니다'를 반복하며 예수님과 함께 눈물을 흘렸다.

점심 후 버스를 타고 섭섭한 마음으로 메주고리예를 떠나 Sprit 공항에 도착하여 큰 건물들을 보는 순간 다시 메주고리예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에 가슴 속이 아파왔다. 마치 천국에서 세속으로 내쫓기는 기분이었다고 나 할까?... 은혜로운 순례를 마치고 돌아와 이 글을 쓰는 순간까지 하루도 메주고리예 생각과 말을 안한 날이 없음을 깨달았다. TV나 비디오는 보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고 멜린다의 음악이나 요조 신부님의 말씀 등은 매일 듣고 있어도 실증이 안난다. 순례를 다녀온 일행 중 여러 분이 아직도 새벽에 깨어 묵주기도를 드리고 계시며 순례를 다시 한 번 가고 싶다고 하신다. 특히 아침 묵상 중에 예수님을 생각하며 천천히 마음 속으로 예수님을 부르면 메주고리예 성시간에서 성체 현시나 성체 거동시 보았던 성광속에서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가슴 깊이 느낄 수가 있었다.

전에는 성당 행사 중에 많은 성광을 보면 참 멋있고 찬란하게 만들어졌구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들고 예수님은 머리로만 생각 할 뿐 가슴으로는 그 현존하심을 느낄 수가 없었다. 그러나 순례를 다녀 온 후 3월 마지막 주일에 저의 본당에서 레지오 아치에스 행사가 있었는데, 성체 강복 시간에 신부님께서 성광을 들어올리시어 성체 강복을 주시는 순간, 가슴이 뛰고 온 몸에 힘이 빠져서 창피한 것도 모르고 한참을 땅바닥에 누워있었다. 하염없이 흐르는 회개와 감사의 눈물과 함께… 이런 느낌은 2001년 순례 때 요조 신부님이 미사 후 안수를 하실 때 한 번 있었다. 많은 성령 세미나에 참석하며, 성령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쉬고싶어 했지만 그런 일이

저에게는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고집 세고 순수 치 못하던 나에게 성모님께서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성체 안에 살아계심을 일깨워 주시고자 제 손을 잡고 예수님께 데려가 주신 것 같다. 감사의 삶으로 더욱 더 잘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듈다.

이제 우리 뽀레시디움은 가정을 소중히 여기시고 돌보시는 성모님께서 분명히 들어주실 것을 믿으며 남편들과 자녀들의 메주고리예 순례를 위하여 기도를 시작하였다. 끝으로 이런 좋은 순례를 할 수 있도록 기도 해주신 본당의 김승주 지도 신부님, 로마에서 모든 성지를 직접 안내 해주시며 그 뜻을 하나라도 더 설명해주실려고 애쓰신 윤종식 신부님,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로운 순례가 되도록 애써주신 평화의 모후 선교회의 남그레고리오 형제님께 감사를 드린다.

"사랑하는 성모님, 이 세상이 당신의 사랑과 평화로 가득차게 해주세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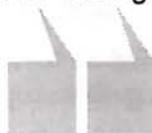


Monthly Reflection On The Message



June 25, 2004 Message of Our Lady of Medjugorje

"Dear children! Also today, joy is in my heart. I desire to thank you for making my plan realizable. Each of you is important, therefore, little children, pray and rejoice with me for every heart that has converted and become an instrument of peace in the world. Prayer groups are powerful, and through them I can see, little children, that the Holy Spirit is at work in the world. Thank you for having responded to my call."



Twenty-three years of love and presence of Mary passed, but Mary is still with us and in front of us. Also today, heart filled with love, she is addressing her maternal word to us. Also today, she is opening to us her heart, which is delighted for each heart that has been converted. Although each message begins with words "dear children", she is speaking to you personally, she is thinking of you, of your heart; she cares for your life and your future.

Today, she is thanking us for all that we are doing so that her plan may be carried out. In the message of 25.08.1991, she told us: "I invite you to the renouncement during nine days, so that with your assistance, all that I wanted to carry out through the secrets that I began in Fatima may be accomplished".

Mary has not become our mother 23 years ago. She is our Mother since Jesus gave her to us on the cross through his words: "Behold your Mother!" At this moment, the disciple took her to himself. (Jn 19,27) Mary wants us to take her to ourselves, into our house, as John did.

Today, it is her anniversary and our anniversary, her day and our day. Today, we are proud and joyful with her, for all the graces of heaven, which came into this world

through her. We are joyful and we give thanks to God for each heart that has been awakened, which has been healed and released from evil that is destroying life.

This world needs God, it needs his grace, and these needs are enormous.

Medjugorje may appear as a drop in the ocean of all these needs. It is an oasis in the desert of this world. Many have found it, but many more must still recognize that it exists, that God exists, and that He is waiting for them. It is important that people know that this oasis exists, and that they believe in the possibility of being refreshed there, of quenching their thirst for peace, for love and for God.

The Virgin Mary knows well that there are many who still must become instruments of peace in this world. Today, she is speaking principally to those who were converted: those who carry in them the love of God, and who have become carriers of healing of human relations, wounded by envy, selfishness, hatred and wickedness. Mary our Mother knows that it is better to light a small light than to become exhausted while cursing darkness. She is not pointing at our wounds and our sins, but she is encouraging what is good, holy and divine in us.

In the eyes of our heavenly Mother, we all are necessary

Prayer Groups are Powerful



and important. We do not need to boast or to claim to be what we are not. We do not need to carry a mask, as Adam and Eve did after the fall. In front of Mary, we can be like children: in front of her, we can expose our nudity, knowing that she will cover us with purity and strength of her maternal love, which can heal what the sin has wounded.

Neither God nor Mary expects from us the impossible. They do not expect from us great and magnificent deeds, but small things with much love and kindness.

We came into this world thanks to kindness and love of others. We cannot grow in faith and arrive to God without others. We have received so much from others. This is why Mary speaks about prayer groups, through which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is working, and in which we can grow as children of Mary.

Mary, our Mother, Queen of Peace, Queen of Heaven and earth, do not become weary of us; do not become weary to call us and to guide us on the way of Salvation.

M

Fr. Ljubo Kurtovic
Medjugorje June 26, 2004



Praised be Jesus and Mary!

Large crowds of pilgrims came to Medjugorje for the 23rd Anniversary of the Apparitions. What a pleasant surprise it was for all of us to hear this beautiful message given by the Gospa on this occasion. The joy of Heaven was in our midst and the faces were radiating!

It seems to me that this message, apparently simple, contains an important key for our times and for the times to come. On this day when Our Lady assembled a multitude of her children from every continent, on this Anniversary where she is most listened to, she confides to us: "The prayer groups are strong". Why did she not say: "the parishes are strong", "the families are strong" or "the seminaries are strong?" It is useless to expound with an answer that all of us can guess: aren't the families weaker than ever? In designating prayer groups, the Queen of Peace seems to be showing us her greatest hope - for the future of the Church and of the world. She counts on the prayer groups to hasten the coming of the New Pentecost of Love. "...through them I can see, little children, that the Holy Spirit is at work in the world..." she says. Like a lightning rod attracts the lightning, a prayer group attracts the fire of the Holy Spirit downward. In the past, little groups of prayerful people have kept the Faith alive in their countries under Communism; And today, the West is indeed persecuted and oppressed by materialism, Satanism and by the imposition of laws which seriously offend the Creator. Now, to make up a prayer group, two or three people are enough if they form one heart and unite their voices in prayer to God. Thousands of small prayer groups have thereby been formed throughout the world, in the spirit of Medjugorje. Some are small in number but so



Prayer Groups are Powerful

important before God! The Gospa has a predilection for humble realities, hidden to the eyes of men but so splendid before God! What is great is actually the unity of hearts, this union which grows more Divine each day. True strength lies within this unity. It is dynamite and Satan is horrified by it.

When the Gospa first came to Medjugorje, everything was already in place for the Franciscans and the families in Medjugorje to lead a solid Christian life. But, she insisted on creating a prayer group! She, herself, chose those responsible for the group and she even indicated by name some young people who would be part of it. Surely, this was not to exclude others. On the contrary, she blessed and guided the parish and its families. But she knows that these groups can only be alive in God if, in fact, the union of hearts prevails in them: "Dear Children", she said. "The aim of the prayer group is not prayer, it is love! Prayer is the means of obtaining love". Parishes and families can be the most beautiful prayer groups! Speaking of families, Our Lady said: "May your first prayer group be your family." A family can only be strong if its members live together in a union of love founded on God. It is the same for parishes, communities or diverse Christian groups. Prayers groups have the grace to promote communion between family members or parishioners. If they are truly alive, initiatives and actions will begin to take root, and vocations will blossom.

The intensive formation which the Gospa gave to the youth of the prayer group included demanding exercises

for mutual acceptance and charity. Natural feelings and attractions (which are more and more fleeting today) had to give way to a more supernatural joyful and unselfish love that the Holy Spirit spreads in our hearts. At first glance, the demands and sacrifices asked by Our Lady could appear harsh but not a single member of the group regrets in the least having been taught in such a school. This was the Mother of God's school! Today, the youth are in need of these guidelines, they seek them! (We have fear when it comes to giving the full Gospel to the youth. We are afraid of discouraging them, or asking too much of them too fast. But how many Saints would never have attained Sanctity if they had been given a rose-colored vision of the Christian life!? Isn't it, in fact, this watered down version of Catholic teaching that has emptied the parishes?!)

"The aim of the Prayer Group is not prayer, it is love! Prayer is the means of obtaining love."

In June, 1983, the Gospa dictated to Jelena Vasilj the rules for the prayer group which was just starting. These rules, I am certain, will go right to the heart of many teenagers and also adults, who are desperately searching for a durable way of life that is worth living:

1. Renounce all passions and all inordinate desires. Avoid television, particularly evil programs, excessive sports, the unreasonable enjoyment of food and drink, alcohol, tobacco, etc.
2. Abandon yourselves to God without any restrictions.
3. Definitely eliminate all anguish. Whoever abandons himself to God does not have room in his heart for

Prayer Groups are Powerful



anguish. Difficulties will persist, but they will serve for spiritual growth and will render glory to God.

4. Love your enemies. Banish from your heart hatred, bitterness, and preconceived judgments. Pray for your enemies and call the Divine Blessing over them.

5. Fast twice a week on bread and water. Join the group at least once a week.

6. Devote at least three hours to prayer daily, of which at least is half an hour in the morning and half an hour in the evening. Holy Mass and the prayer of the Rosary are included in this time of prayer. Set aside moments of prayer in the course of the day, and each time that circumstances permit it, receive Holy Communion. Pray with great meditation. Do not look at your watch all the time, but allow yourself to be lead by the grace of God. Do not concern yourself too much with the things of this world, but entrust all that in prayer to Our Heavenly Father. If one is very preoccupied, he will not be able to pray well because internal serenity is lacking. God will contribute to lead to a successful end the things of here below if one strives to work for God's things. Those who attend school or go to work must pray half an hour in the morning and in the evening, and, if possible, participate in the Eucharist. It is necessary to extend the spirit of prayer to daily work, that is to say, to accompany work with prayer.

7. Be prudent because the devil tempts all those who have made a resolution to consecrate themselves to God, most particularly, those people. He will suggest to them that they are praying too much, they are fasting too much, that they must be like other young people and go in search of pleasures. Have them not listen to him, nor obey him. It is to the voice of the Blessed Virgin that they should pay attention. When they will be strength-

ened in their faith, the devil will no longer be able to seduce them.

8. Pray very much for the Bishop and for those who hold positions in the Church. No less than half of their prayers and sacrifices must be devoted to this intention."

On May 23rd , 1983, Our Lady said to Jelena: "Assemble about twenty young people who are ready to follow Jesus without reservation. Bring them together within a month's notice. I will initiate them into the spiritual life. There can even be more than twenty. Even some adults and children can participate, all those who will accept the rule. I will ask these people to do penance for certain intentions. They will fast and pray for the Bishop. They will give up what they cherish the most: drink, coffee, pleasures, television. It is necessary to have persons who wish to consecrate themselves to religious life. Others have to be ready to consecrate themselves especially to prayer and fasting. I will give them rules to follow. The persons who will follow these rules, will be consecrated whatever their state in life may be." **M**



▶ 성모님의 매달 메세지와 순례안내

매일 미사책을 보시면 매달 25일 메주고리예 성모님께서 발현 목격자인 마리아를 통하여 전 세계에 주시는 주시는 메시지를 보실 수가 있으며 평화의 모후 선교회에서 주관하는 순례 안내도 함께 있습니다.

▶ 보내주신 모든 기도 지향을 봉헌 했습니다.

선교회에 보내주신 모든 기도 지향들을 위하여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그리고 7월 메주고리예 순례 때에도 미사를 드렸으며 매일 발현을 보는 목격증인 비스카에게 “성모님께 드리는 편지”와 함께 전달하여 성모님의 축복을 청했습니다.

▶ 특집 “메주고리예에서는 어떤 곳인가?”

21호 기사를 보고 메주고리예 성모님의 발현 초기 내용과 목격자, 그리고 관련된 분들이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해하는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독자들의 요청으로 이번호 부터 메주고리예 발현에 대한 기사와 메주고리예 성모님의 열매가 되어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의 이야기를 연재합니다.

▶ 땅 끝까지 전해야 할 성모님의 메시지…

지난 22호 소식지는 6천부를 인쇄해서 한국에 1500부, 카나다에 600부 미주 지역에 3,800부를 발송했습니다. 처음에는 소식지를 10,000부씩 인쇄를 하여 메주고리예 와 팜, 사이판지역과 그 외에도 원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보냈으나 이번에는 소식지가 부족하여 미주지역에도 다 보내지 못해 마냥 아쉬운 마음이었습니다.

▶ 감사드립니다.

70파운드 무개의 22호 소식지 4박스를 한국으로 직접 운반해주신 박 요한나 자매님, 김 요한 형제님과 오하이오에서 각 지역으로 소식지를 운반해주신 봉사자님들께 감사드리며 성모님께서 몇 배의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 선교회의 홈페이지

교회의 홈페이지가 서버와 관련된 문제로 잠시 운영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곧 정상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 선교회에 보내주시는 기도지향은…

- 1) “성모님께 드리는 편지”라고 쓰시는 편지는 보내주시는 그대로 메주고리예의 순례 때 발현 목격자인 비스카에게 전해드립니다.
- 2) 전화나 메일, 팩스로 보내주시는 기도는 “성모님과 함께 드리는 기도” 난에 기재됩니다.
- 3) 미사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향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메주고리예 순례 때와 선교회의 자문 신부님들께서 정성껏 봉헌해드리며 성모님의 발현 때 봉헌됩니다.

▶ 주소가 바뀐 회원님들께 ...

여러가지 이유로 돌아 오는 소식지가 많아서 선교회의 경비와 인력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소식지의 정확한 전달을 위하여 이사하신 회원님들의 주소를 정리하고 있으니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모님의 소식지 “메주고리예”는 후원회원들의 기도와 정성으로 무료 배부되고 있습니다.



소식지를 원하시는
분들이나 본당의
봉사자님들은
전화나 팩스 또는
E-mail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pm2003@hanmail.net

Queen of Peace Missionary

Tel : (610) 965-6168. Fax : (610) 965-6179
309 Parkside Drive, Macungie, PA 18062

발 행 처 : 평화의 모후 선교회
발 행 인 : 남홍의 그레고리오
지 도 신 부 : 박창득 어거스틴 몬시뇰
자문위원회 : 요조 조브코 신부, 김기수 신부,
백남국 신부, 표신천 신부,
윤종식 신부, 웨인 와이블,
남기옥 마르타(선교학 박사)
편 집 위 원 : 오영숙, 양의현, 송시원,
남미자, 이해인
인 쇄 : 미주기톨릭출판사

평화의 모후 선교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평화의 모후이신 메주고리예 성모님께서는 1981년 6월부터 현재까지 매일 발현하시면서 예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도록 촉구하고 계십니다. 미국 연방정부에 뉴왁교구 가톨릭 비영리 단체로 등록된 평화의 모후 선교회에서는 성모님의 소식지 "메주고리예"를 발행하며 세계의 평화를 위하여 회개하고 보속의 삶을 살도록 초대하시는 성모님의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선교회는 예수님과 성모님을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의 참여와 정성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후원 회원님들과 함께 다음과 같은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1. 성모님의 소식지 "메주고리예" 발행
2. 신앙 체험을 위한 메주고리예 순례 안내
3. 성모님의 "특별한 지향들의 구현"
4. "평화의 모후 기도회" 설립 및 지원
5. 한. 영문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6. 메주고리예 관련 책 번역 및 출판 보급
7. 성모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관련인사 및 메주고리예 목격증인 초청 강연회 개최

성모님께서는 "나는 너희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나는 너희들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단다"라고 하시며 지금 이시간에도 우리들을 성모님의 평화의 사도로 부르고 계십니다. 성모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보내주시는 후원금은 "메주고리예" 소식지의 꾸준한 발행을 통하여 성모님의 메시지를 더욱 많은 분들에게 전파하는 선교 사명에 쓰여지고 있으며 평화의 모후 선교회에서는 성모님과 함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후원 회원님들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1. 성모님의 소식지 "메주고리예"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2. 메주고리예 순례 때와 매월 성모 신심 첫 토요일에 회원들의 기도 지향과 가정의 평화를 위하여 미사를 봉헌해 드리고 있습니다.
3. 회원들이 보내주시는 "성모님께 드리는 편지와 모든 기도 지향"을 성모님의 매일 빌현을 보고 있는 목격 증인 비스카에게 전해 주어 성모님께 봉헌하며 축복을 청해드립니다.
4. "평화의 모후 기도회" 때마다 모든 회원들을 위해 지속적인 기도를 바쳐 드립니다.
5. 선교회는 비영리 단체로서 보내주시는 후원금은 IRS 세금 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평화의 모후 선교회 후원 회원 가입서

날짜 년 월 일

성명 :

영문 :

영세명 :

주소 :

전화(H) :

전화(O) :

Fax :

E-mail :

소속분당 :

해당란에 표 하여 주십시오. 월() 년() 기타() 금액 \$ 기존회원 () 새회원 ()

보내실곳 ▶ 미국 : 남그레고리오 (610-965-6168)

Queen of Peace Missionary 309 Parkside Drive, Macungie, PA 18062

▶ 한국 : 허혜경 안젤라 (031-878-7362)

경기도 의정부시 효원동 뉴 삼익 아파트 104동 2205호

USA

남 그레그리오

309 Parkside Drive, Macungie, PA 18062
Tel. 610-965-6168 / Fax. 610-965-6179
E-mail : gregorynam@hotmail.com

CANADA

강 애리 막달레나

59 Clarinda Drive
North York, ON M2K2V2 Canada
Tel. 416-222-2776

KOREA

하 예경 안젤라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누 삼의 APT 104동 2205호
Tel. 031-878-7362 / HP. 017-785-3535
E-mail : hhk2123@hanmail.net

평화의 모후 선교회 *Queen of Peace Missionary*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오늘 나는 너희들을
나의 메세지를 전하는
선교사가 되어 달라고 초대한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주었던 메세지를
사랑하며 살아가고 그것을 온 세상에
전해 주기 바란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평화가 없는 곳에 평화가 되어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되어라
그러면 모든 이들의 마음은
빛과 구원의 길을 받아들일 것이다.

나의 부름에 응답하여 주어 고맙구나 . . .

